

# 제41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30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나. 특허청 소관
2. 소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 2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나. 특허청 소관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30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0  
○ 소위원장(김원이·박성민·강승규·이언주) 인사 ..... 31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그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엄중히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오전 시간대 일시 불출석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전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

###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나. 특허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가능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말씀과 면밀한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7월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AI·반도체와 같

은 초격차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과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부 대출 대상으로 전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의 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과 지원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이 경영에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동행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는 글로벌 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수출마우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50+ 등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R&D 지원은 저변 확대에서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R&D다운 R&D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학과 등을 통해 판로 및 인력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전용 벤처펀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을 통해 지역창업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강화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하여 M&A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화해 주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촉진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의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입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입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입니다.

김성섭 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입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입니다.  
 최열수 창업진흥원 본부장입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입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추진과제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관, 4실, 48개 과, 13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1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4조 9497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관 법률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총 28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4쪽,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5쪽,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국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나 수출은 반등 추세이며 창업기업은 감소한 반면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라는 큰 전략하에 분야별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역동적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활력 회복입니다.

먼저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기업권 대출의 이자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대폭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개선부터 폐업, 재창업·재취업까지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등 경영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관리 지원 및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협력체계를 통한 상생금융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글로벌 상권을 육성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공간 조성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사용 대상 상점가 확대, 사용 제한 업종 축소를 통해 시장과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동행축제를 하반기에 2회 추가로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 수준에 따른 교육·홍보·상품개선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사업장에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기기 등을 보급하며 상권 분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관련 소상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라이콘타운 구축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별보증 프로그램,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프로그램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과 현지 정착을 돕고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지원하는 레전드 50+ 운영 등으로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제조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 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조정 중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올해 스타트업 전용 법률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금융권과 공동으로 선제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전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ESG 관리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와 자금 지원 및 종합정보 제공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제도와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글로벌화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업을 통한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틱스(TIPS)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펀드 조성,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구축, 취업·창업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28조 5000억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성과조건부 주식과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이 창업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권역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걸림돌 없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지정된 네 곳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건축 입지 관련 자치법규 일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규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정책자금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상생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M&A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기술평가 고도화 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기업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기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의 첫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 한 해 세계경제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과 함께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블록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을 하방 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혁신 정책과 더불어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해 심사·심판의 내부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국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 대안과 제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 특허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입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입니다.

구영민 기획조정관입니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입니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입니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상근이사입니다.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입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입니다.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입니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중심으로 특허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특허청 조직은 1관 9국 58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802명으로 박사학위,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등 절반 이상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사·심판·수사·정책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17억 원으로 수수료 등 자체 수입을 통해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3647억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3쪽의 업무추진 여건 등은 자료로 같음하고 6쪽 주요 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 1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올해 6월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였고 특허

심사관으로 민간 퇴직인력 22명을 채용하였으며 추가로 16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관련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담 심판부를 지정 운영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특허검색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전략 2 혁신 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 마련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방첩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가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 탐지에 있어 특허정보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안보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찰청과의 수사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수사·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 신속한 분쟁해결체계 구축 전반에 걸쳐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10쪽, 전략 3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지난 2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경쟁국과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허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 국가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확대되는 202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혁신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12쪽, 전략 4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 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투자기관이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공제사

업을 안정 궤도에 올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전략 5 지식재산 기반 수출 드라이브입니다.

개별 국가 중심의 현지 지원체계를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도 증가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동,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5대 선진 강국으로서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배석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상대로 국회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오늘 장관의 인사말씀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는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를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상공인 피해 현황 파악이라든가 대책, 대안 이런 것들을 오후 질의 전까지는 모든 위원들에게 같이 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경청하셨지요, 장관님? 업무보고에 지금 온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이런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해서 오후 질의 들어가기 직전에, 오후 질의 시작 전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야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은 저쪽의 허성무 위원님,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현 회장님이 협회 내 조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재직 연도, 재직 기간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조정심사위원회에서 최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유와 일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부처에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기 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당초에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버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임위를 여는 것이어서 사실 의장님의 승인도 필요했고 또 필버가 진행 중이니까 상임위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하고 1차 5분, 2차 3분으로 우리가 질의를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9시에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이 가능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 시간이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 혹시 가능하면…… 제가 약속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시면 질의 시간이나 질의 횟수를 좀 더 늘려 주시면 어떨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의견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여야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오찬 시간에 하셔도 되니까 회의 진행해 주시고요.

박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사실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질의를 저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어제 질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5분, 3분 진행하니까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사실 질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질의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충분하게 답변을 듣고 상호 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아시다시피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또 밤새 당번도 했고, 사실은 우리 간사끼리 협의를 하면서 본회의 중에 회의를 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앉아 있습니다만 밤샘한 위원들도 있고 한테 물론 질의 시간을 줄이자, 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제, 오늘 이 회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특히 야당에서 꼭 좀 7월 중에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무리하게 사실은 열었습니다. 무리하게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 저는 충분히 존중해서 이 회의를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도 좀 이

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더불어 대화가 잘 될 것 같고요.

회의 진행은 우리 산자위가 처음, 22대 첫 회의지만 이게 21대도 20대도 계속 진행돼 왔던 관행 또 전례 이런 것을 참고하고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펠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 개최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간사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한두 분씩이라도 양쪽에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업무보고도 있고 또 현안보고 또 그 외에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위가 위원님들의 숫자가 서른 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상임위 보다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기회가 조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입니다.

오늘은 먼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1번 질의자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1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소상공인·자영업은, 어찌 보면 중소벤처부가 참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700만이 넘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처럼 해야 돼서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앞서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쿠팡 사태가 심각한 거 아시지요? 입점 셀러들이, 소상공인들이 잘못도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이 현재 한 2000억이 넘고 약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온라인 판로대책의 지원 사업으로 위메프와 티몬이 입점했대요. 지금 그 업주들에 대한 책임과 중기부의 대응이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먼저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정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제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5월 달 정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계부처로부터 2134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판매 피해를 확인한 상황이고 앞으로 6월과 7월 달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통한 매출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오세희 위원 좀 짧게, 자세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위메프와 하고 있는 것은 한 40억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위메프는 정산을 좀 받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수가 95%예요. 중소기업이 4.9%, 참 크지요. 그만큼 100에서 95%고 중소기업은 4.9입니다. 거꾸로 아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고요.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또다시 보고가 있을 거고.

제가 오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배달료의 인상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기습적으로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 9.8%, 그러니까 3%를 올렸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찌 보면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시장점유율이 63%지요. 그게 일방적으로 3%를 올렸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배달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진짜 크고 또 상생의 차원에서 배달업체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지금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면 업주들이 배달비, 중개이용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 부가세, 만 원짜리를 팔면 4298원 그래서 40%입니다.

지난 23일 날 범부처 플랫폼 상생협의회 첫 회의를 하셨지요? 정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건 좋은데 상생협의체 안에 강제안이 없다는 게 좀 문제지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에 일방적인 규제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미국에서 일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험판결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위축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공공앱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공공앱 문제, 활용방안이 지금 상생협의체에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배달앱에 대해서, 지금 배달앱에 대해서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부가세 10%가 면제된다고 했잖아요. 부가세가 좀 거기에 부과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 10%를 면제해 달라 이 얘기가 많습시다. 그러니까 배달료 지원보다도 배달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얘기를 좀 검토를 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업인데 지금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폐업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이 ‘부럽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폐기해야지요, 원상복구해야 하지요, 잔여 계약기간 임대료, 사업체 계약 해지 위약금 이렇게 많습시다. 그래서 평균 소요 비용이 1558만 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또 250만 원에서 150을 올려서 400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균 폐업 비용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상공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폐업 비용에 좀 추가로 기금을 만들어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 폐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창업과 재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업무 중에 틱스 업무라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가장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 이게 처음 시작될 때 30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스케일업 틱스까지 합치면 5780억, 약 20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0개의 기업에 혜택이 있었고 또 민간에서 13조 정도의 투자가 유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2조 30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심 기관이 엔젤협회 아닙니까?

그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엔젤협회가 순수한 민간기관인데 이 엔젤협회가 운영사를 선정하고 퇴출하고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된 운영사가 동시에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기업 입장에서 보면 위에 운영사가 갇히고 그 위에 엔젤투자협회는 갇 오브 갇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기부가 협약을 맺고 이렇게 모든 걸 맡겨 놓고 있는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엔젤투자협회는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위원회가 엔젤투자협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엔젤투자협회가 그 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협회 회장님이 거기에 핵심 위원회의 위원으로 오랫동안, 이 회장님이 이 협회가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으로 계시고, 물론 이 회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에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0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출연금이 어쨌든 스케일업 틱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약 20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유아 때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성인이 된 협회를 운영하는 규칙 그대로 똑같아요. 발전된 바가 없어요. 외부 감시 장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먼저 스케일업 틱스는 엔젤투자협회에서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스케일업은 벤처투자협회로 빠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팁스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기부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굉장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차 팁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팁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지금까지 팁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팁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R&D 조정을 하면서 올해 줄 돈들을 조금 적게 줬기 때문에 그 민원 외에는 크게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 여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잘 챙겨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창업기업의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또 다른 불이익, 불공정이 있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문제가 만일 확인된다고 하면, 관리·감독 기관을 창진원과 중기부가 하기 때문에 확인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미약하지요. 거의 미약하지요.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규제를 타파하겠다, 규제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규제는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팁스와 관련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해 오셨다고 칭찬도 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연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팁스가 운영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중기부에 제기됐던 모든 민원 원본 그리고 그 민원 처리 답변서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오후 질의 가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민원서 원본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팁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잘 생각을 해서 민간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잘 챙겨 보고 관리 감독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지금 티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티메프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회생절차 신청하면서 아마 보전처분 이런 것도 같이 신청한 모양입니다. 만약 보전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면 판매업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박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 그래서 그런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들은 당분간 어떤 상황이다, 그래야지 혼란이 적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부에서 그런 부분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터진 것은 기본적으로 큐텐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위메프나 티몬의 자금을 빼 쓰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밝혀내겠지요. 자금을 횡령했다면 횡령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또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점을 하도록 하고 했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피해 규모가 2100억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1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중기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판매자 미정산 대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저희 관계부처 회의에서, 관련돼 있는 금융 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사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공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월 정산은 2134억 원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월이 정산이 되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 내에서는 TF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티메프 관련자의 메모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1조가량 될 거다라는 메모까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책 중의 하나로 이 판매대금, 70일간 보관하다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좀 단축한다든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도 중소기업부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빠른 정산도 중요하지만 아마 예치를 좀 해서 에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이걸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다가 뭐라고 그러지요, 선정산을 받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정산, 예.

○박형수 위원 선정산을 받고 나면 그 후에 판매대금이 입금이 안 되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선정산에 대해서 회수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징 통보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금 대책에서 그 부분을 1년간 상환 연장하기로 정부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산했던 경우에.

○박형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세밀하게 살펴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또 홍보도 해서 판매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전체 지금 우리 정부에서 5600억 정도의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부 관련해서는 소진공, 중진공에서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다른 부분까지 다 장관님이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중진공, 소진공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라든가 부분 좀 설명을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진공, 소진공도 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더라도 무상으로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거기. 3.51%, 3.4% 이 정도 이자가 붙어 있던데 이 부분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규정은 어떤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첫 번째는 중기부 차원의 산하기관 중진공, 소진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제공되는 그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 소진공에서 소진공 기금 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700억 그리고 중진공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합쳐서 2000억 원을 저희가 투입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용자가 되겠습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정상 10억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소진공은 원래 70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계획에 1억 5000만 원까지 올려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확인을 받고 미정산돼 있는 그 대금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용자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용자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낮은,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3.51%, 3.4% 정도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이 이자율 자체에서 저희가 어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진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보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조속히, 이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8월 초까지는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

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코로나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김동아 위원** 소상공인 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새로운 도약입니다.

○**김동아 위원** 윤석열 정부 임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호 국정과제 어떻게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작된 여러 가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소상공인 많으시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소상공인 폐업자 수, 폐업률, 대출 연체율 등 모든 지표는 나빠지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폐업자 수가 최근에 기존 19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전기요금 감면 관련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그 자리에 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 없던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국회에서 지금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색내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회에서……

○**김동아 위원**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 요구로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 지금 지원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전기요금을 초반에 정말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위소득의 6000만 원, 연 6000만 원 매출의 반,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또 지원하지 않으신 분도 계셔 가지고 조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변호사가 연매출이 200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가 연매출 2000이면 신청할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소상공인증이 필요합니까, 이것 신청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소상공인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봤는데 소상공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매출 자료만 있으면 되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이신지는 확인을, 그러니까 5인 미만이 하고 계시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인 미만의 변호사가, 단독 개업한 변호사가 2000만 원의 매출이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묻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이 되시고……

○**김동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확대를 6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 남아서 그냥 6000만 원으로 확대하신 거지요, 예산 소진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저희가 국세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연매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분이 한 126만 명 계신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것은 그냥 매출을 국세청에서 자른 거잖아요. 무슨 소상공인인지,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전에 몇십억 벌다가 그냥 사업을 팽개쳐 가지고 2000만 원을 버는지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매출액 3000으로 자르신 거잖아요. 그걸 질문드린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업자로서 전기요금을 썼다는 것을 또 증명하셔야 됩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을 지금 전기료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연 600만 원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월

50만 원 정도 버는 사업자라면 부업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월 50만 원의 수익을 갖는다면 거의 부업 수준의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연매출액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을 통계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7월 3일 날 대책 이후에……

○김동아 위원 통계상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에서 그냥 6000만 원 매출로 툭 자르신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7월 3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이미 일주일 동안 7만여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6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좀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좀 더 제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입니다.

장관님, 티몬과 위메프 문제가 결국은 이제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현재 피해 규모가 2134억, 파악된 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6, 7월분이 추가로 들어오면 조금 늘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통계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6, 7월 판매대금 다 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1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지금 티몬 직원의 메모를 보면 티몬만 6000에서 7000억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하면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대책으로 나온 건 5600억 해서 대출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대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된 분들에 대해서 먼저……

○송재봉 위원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지요, 대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먼저 지원해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금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정산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7월 11일 날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3일경에 티몬의 사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7월 초잖아요, 10일 전후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PPT를 하나 보시면 이것이 중기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위메프, 물론 보도자료는 위메프에서 낸 것 같기는 한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소상공인 모집하고 지원하고 해서 위메프가 굉장히 뭔가 신뢰성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보증해 주고 있는 듯한 이런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7월 11일 날 저희가 인지하고 유통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정산 시스템 자체 문제이고 바로 본인들이 우리가 입점, 중기부의 지원으로 입점한 사람들이 한 40억, 46억 원이 있었는데 바로 지급을 하겠다 해서 24일까지 20억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티몬 상황이나 여러 군데 확인을 했을 때 이걸 일시적인 전산의 지연 상태라고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좀 더 긴급하게 제대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미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에서도 자본잠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부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사업을 같이해요. 계속 지원도 하고. 그래서 큐텐 계열사 다섯 곳에 3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 사업으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올해……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입니다.

○송재봉 위원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신 거지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 가는 돈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점된 소상공인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원 대책으로 나온 것도 보면 다 금융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도 높아요. 말씀 좀 전에 하신 대로 3.4, 3.51. 그런데 이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지금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그냥 정말 갑작스럽게 손해가 온 건데 이자를 이렇게 받는 게 맞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인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하는 이자율은 사실 다른 이자율보다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송재봉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미 상당한 부담과 부도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고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전자상거래라든가 특히 용산의 전자상거래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행 쪽이나 상당한 지금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에 집중을 관계부처와 업무 분담해서 하고 있고 이커머스 전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 회의를 하면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자본잠식 문제 이런 것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사실 많은 이커머스들이 자본잠식하에서 성장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에스프로 제도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커머스들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더 건전하게 가져가는 방향 고민하게도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에스프로 제도는 이번에 반드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 저희가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송재봉 위원** 중기부의 입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쪽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부분은 관계부처와 함께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이 다 동결이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동결 가능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랬을 때 정부 지원의 실효성 내지는 그때 또 정부가 고민해야 될 바  
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희생되는 절차 그리고 지금 티몬 대표의 방안 이런 것들  
을 전체 정부 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2134억 원으로 특징이 되어 있는  
지금 미정산 사태를 받으신 소상공인들에 집중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신다면  
그 부분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김종민 위원 하여간 법원 결정과 연관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오늘 첫 회의를 하니까  
중기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5분 안에 우리가 토론을 다 끝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장관  
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차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  
린 문제의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저하고 따로 대면토론 자리를 한번 빨리 만  
들어 주십시오.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 그러면 크게 보면 규제  
업무하고 진흥 업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중기부는 규제 쪽이 강하니까, 진흥 쪽이 강하  
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진흥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무래도 중기부는 진흥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진흥의 목표를 분명히 하려면 저는 이름을 좀 고민을 해 보자,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는데 저는 중소나 벤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단  
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자부는 기업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에요. 산자부는 산업을 다  
루는 부처입니다. 기업을 다루는 부처는 중기벤처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  
서 얘기하면 이 부서의 이름은 기업지원부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지 왜 정부에서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에요.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이었잖아요. 그건  
농경사회 때 그렇고 산업사회는 기자천하지대본입니다. 기업이 사회의 대본이에요. 그걸  
보통 주주 혹은 경영진으로만 기업을 보면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에는 그 기업  
에서는 노동자, 그 기업과 관계하는 소비자가 다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  
로 온 민생이 다 네트워킹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산업사회 천하지대본이에요. 이 기업  
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정부 업무가 기업지원부의 핵심 업무니까 대한민국 부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기업 지원이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원 그러면 자꾸 뭐를 대신해 주려고 그래요. 이끌어 주려고 그래요. 지원은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겁니다.

보통 한국 축구가 왜 유럽 축구보다 안 되냐? 패스도 안 되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유럽의 유소년축구 하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뭐 제일 잘하냐? 너 뭐가 재밌냐? 그것 좀 해 보라. 그것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런데 한국의 유소년축구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축구야.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 역전이 돼 버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개인과 조직의 창의와 자원의 에너지, 혁신에너지가 마음껏 흐르게 하는 게 일단 기업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껏 흐르다 보면 승자독식이 되니 이 물길을 좀 제방도 쌓고 또 장애물도 제거해 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지원 역할이지 내가 대신 흘러가겠다, 내가 대신 기업을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기부가 아직도 저는 관치경제, 관치행정의 그런 여운이 좀 남아 있다.

투자 분야든, 예를 들면 투자 인프라를 보세요. 우리가 정책금융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정책금융이 옛날 실리콘밸리도 정책금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했지요. 정책금융이 필요한 것은 지금 시드 정도, 정말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도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벤처투자 시리즈A 그다음에 성장금융 이것을 다 정책이 해요, 모태펀드가 하고 성장금융이 하고. 그래서 민간 모태펀드로 지금 바꾼다고 그래요, 중기부가. 그런데 민간 모태펀드도 보니까 중기부가 다 주도해서 만들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맛만 보다 말았는데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모태펀드도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꼭 따로 차관님이나 기조실장님 보내서 가지고 저랑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합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김종민 위원님 좋은 의견이 많으시니까 한번 경청하시도록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출신 정진욱입니다.

거의 두 달이 돼서 지금 산자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 놓고 쫓기듯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 저는 좀 각별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771만 4000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까지 다 합쳐서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종업원 수는 1849만 명, 81%입니다. 예전에 제가 암기했던 게 9988이었거든요. 그런데 88%에서 81%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은 733만 5000개로 중소기업 중에서 또 95%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5분의 2에 가까운 분들이 중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격려하고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까 진흥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런 역할 우선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찬가지로 특허청도,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근간에는 그 과학기술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때 비로소 과학기술이 발전하거든요. 이전에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낸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이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잡혀 가고 있고요. 또 특허청이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몬·위메프 사태 조금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생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 이런 말씀 했거든요. 그러면서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지요, 지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때 경영안정자금이 한 5600억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5600억.

○정진욱 위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진공이 3.51 그리고 중진공 경영은 3.4로 이자 지금은 설정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3.4, 3.5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 볼 때마다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정한 정부가 있습니까? 지금 망해 가는데……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나온 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빚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다’. 물론 공짜로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는 게 그게 경영

안정자금입니까? 다시 한번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민생이 어려울 때, 아마 이번 겨울처럼 어려운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25만 원에서 35만 원, 우리 국민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에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욱 위원**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3.5%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과 함께 취약·한계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채무의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현금도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것도 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대책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한계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로서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했을 때 더 빠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출 증진과 관련해서도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현장에서 온기가 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생하셨습니다.

**○정진욱 위원** 제대로 하는지 제가 세심하게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말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하고자 하니까 두 분 간사님과 이언주 위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초에 취임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12월 말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한 7개월 정도 하셨네요.

다른 곳, 다른 데 있다가 중소기업 처음 그때 맡아서 가지고 아마 시각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소기업부 맡아 보니까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생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의 활력이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문제까지 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사명이 매우 엄중하다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특히 장관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또 벤처기업 이런 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원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소기업부가 더 할 일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티몬·위메프, 티메프에 정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느 부처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주관을 하고요.

○이종배 위원 기재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공정위, 금융위, 중기부, 여러 부처들이 지금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합동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합동으로 하고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자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자주 하고 또 계속 저희 네트워킹해서 전화를 실무 차원에서는 하고요, 금융위하고 중기부는 또 실장급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금융안정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커머스는 산업부에서 컨트롤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다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업들.

○이종배 위원 이분들이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종배 위원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많이 이끌어 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회생 절차를 진행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내부적으로 계속……

○이종배 위원 언론에 보니까 6만 개 판매사가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부처가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파악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오늘 정무위에도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출석 요구했는데, 오후에 출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도 관심 갖고 챙겨 봐야지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산업부 또 중기부에서 이런 것 긴밀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같은 것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유통업법 같은 것은 산업부 소관 법이니까 거기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티몬·위메프에서 하도록 해 놔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20년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티몬·위메프가 벌써 19년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 수행사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규정에는 이런 위반되는 건 없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됐는지, 그 점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하고 또 여기 이 센터에 보니까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렇던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리스크가 생길 걸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긴급경영안정자금하고 판로 확보한다는데 판로 확보에서, 지금 다음 날 판매대금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급적 그런 업체들로 해 줬으면 좋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지금 특히 바로 다른 쪽으로 판로를 열어서 매출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플랫폼들이 또 있습니다. 한 40개 플랫폼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데는 그다음 날 정산을 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다음 날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수행 기관을 할 때…… 약간 자본잠식은 이커머스 사업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상태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 와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는 그러한 온라인 지원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이철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는 총 4개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2개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정원과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쳤으며 위원 명단은 각 교섭단체별로 제출받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 13인으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간사께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성민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역시 13인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위원회는 두 교섭단체가 상호 1년씩 교대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합의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 소위원장(김원이·박성민·강승규·이언주) 인사

(11시36분)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소위원장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원래 여당 간사가 1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 김원이 간사께서 본인이 꼭 1소위를 하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기업인들이 더 현장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메프 사태 등같이 눈물을 덜 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결산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님들이 의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맡고 대신에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 또 예산안, 결산 및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쿠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쿠팡CLS 측에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도 10명의 의원님들이 갔었는데 현장을 보여 주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 문제가 단순히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총알배송, 섯별배송 하면서 전 물류 관련한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데요. 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하면 가정에서 주문을 하면 집 앞에 바로 빠른 배송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대형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찾아서 포장하고 그것을 간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각 캠프에 실어 나르고 캠프에서는 또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소분하고 택배기사가 차량에 실어 나가서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을 피하고 가짜 3.3 계약이라는 것을 내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제시간 안에 그 일을 제대로 못 마쳐 내면, 이거 다 전산 통제로 이루어지거든요. 클렌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사업을 하는 영역 자체를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의 업무의 범위에 있는지 제가 챙겨 보고 나중에 별도로 의원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로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께서 취임사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올해 R&D 예산은 얼마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권향엽 위원 기술개발 장려·촉진 단위의 사업 지금 현재 0원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술개발…… R&D 예산들 중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는 다른 보조금 사업들을 통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R&D 말씀하시는지.

○권향엽 위원 해외 기술교류 플랫폼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해외 기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수출마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성장 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융복합 기술교류 촉진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술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흥국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 발굴 및 매칭 등의 기술교류를 하는 사업인데요. 본 의원실이 중기부에 왜 이 사업이 예산을 받지 못했는지를 물었더니 R&D 예산에 있어서 후순위여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장관,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R&D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 증진 사업과, R&D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출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다른 저희 보조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서 이런 해외 기술교류 플랫폼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서 해외 기술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톨도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시장을 개척하고 바이어를 더 많이 만들고 하는 게……

○**권향엽 위원** 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오후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 R&D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중복된 사업이라서 수출바우처의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녀 보면 저희 지역에 팬찮은 재래시장도 절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가 보면 1년 전에 개업한 업체들이 전부 문을 닫고 새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오랜 업체들이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개업한 업체들이 1년 정도 지나서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1년만 하고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접는 건데 임대료도 있을 테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설비비도 있을 테고 이런 걸 다 날리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개인사업자 폐업 수가 2022년에 80만 명에서 23년에는 91만 명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늘고 있는데 무슨 퇴직금을 받는단지,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열었다가 문 닫으면 사실상 노후 자금도 까먹게 되는 거고 쫓딱 망하게 되는 건데 이것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지난 3일에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시급한 무슨 금융 지원 문제 같은 건 들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비중이 23.5%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은 6.6%, 우리나라가 3.6배나 높지요. 일본이 9.6%, 우리나라가 2.4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을 막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만 먹고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개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손해도 있고 나머지 기존 업체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MB 정부 때는 권역별로 소상공인 지도를 만들고 수익 같은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여기는 수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 제도도 했거든요.

지금 개인이, 소상공인이 개업을 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중하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은 빅데이터 상권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그 근처에 얼마나 동종의 사업들이 있고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만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는 정도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영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총수입이 얼마 되고 비용을 제하면 순수입이 얼마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자료는 안 제공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까지 하면 또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적인 게 필요해서 저희는 소상공인들께서 창업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실 때를 대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민간 플랫폼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저희가 IT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기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좌절감이 큰 것이 개업했다가 금방 문 닫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무경험으로 인한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다음에 저는 이 중소기업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책자금이 나가고 나면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회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코로나 때 현금으로 지난 정부에서 61조 400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대강 감사를 해 보니 3조 2300억 정도가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책자금이 나갈 때는 이런 가능한 부작용을 미리 다 설계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같이 넣어야지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고 이래 봐야 뭐 하겠어요.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 유명 법인, 실체가 없는 법인에도 돈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연 매출이 삼사 년 연속으로 증가한 수십만 명, 이게 2019~2021년까지 증가한 사람이 39만 3000명, 그다음에 4년 증가가 17만 9000명, 이 사람들에게도 돈이 나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랏돈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코로나 때 어렵다고 나간 돈이 무려…… 30만 명, 20만 명에게, 돈 더 번 사람한테 나가는 이런 정책 무능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코로나 시기가 워낙 저희가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3조 2000억 정도가 잘못된 지급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제도 설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고 법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억 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 지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환수 계획을 9월까지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수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환의 연장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챙겨 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특히 현금성 지원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의 책임성, 책무성을 더 가져가기 위한 정부 내에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를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을 막는 제도를 같이 좀 시행하도록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주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오전 업무현황 보고 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배달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 올해 7월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 내신 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출범식 개최했습니다.

○허종식 위원 출범식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 됐고요.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사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부 이렇게 많은 정부 부처가 참여합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10월 달까지 최임위의 형식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누구도 책임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그래도……

○허종식 위원 자, 신음 소리는 중소·소상공인들이 내는 거잖아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지고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하지만 공정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다른 또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서 같이 협의체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대 청년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6월 달, 한 달 동안 배달의민족을 이용해 봤더니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서 424만 5900원을 팔았습니다. 실제 수익은 311만 4000원, 중개료로 113만 원이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1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 정상적으로 매장에 와서 팔면 6000원이 남는데 배달의민족을 쓰면 3300원 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곰은 재주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나는 이 속담이 여기에 맞을 줄 몰랐는데 딱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저한테 이걸 보내 줬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배달의민족과 쓴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정책실장님 혹시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못 봤습니다.

○허종식 위원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읽어 보시면, 말은 6.8%가 맞습니다. 계약서 보면. 주문 금액의 6.8 하는데 배달비 건당 6000원 별도, 배민 중개 이용료 총금액의 15%, 주문 금액 1만 2000원 미만 900원, 1만 2000원 이상 2900원 별도. 조항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우리 오세희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27%에서 40%가 나가는 거예요. 6.8은 절대 안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이 집은, 여기는 30대의 치킨집 사장님인데 우리 다 현장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도 현장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해 보니까 ‘8월 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지요? 7월 3일 날 배달수수료 2025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배달료입니다. 배달 수수료 안에는 중개료, 광고료, 배달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달료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허종식 위원 배달료를 지원하면 이 배달료 누가 가져갈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장관님, 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정부를 얼마나 몰로 보

면, 정부가 7월 3일 날 배달료를 지원하고 좀 인하시켜 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배달의민족은 8월부터 9.8로 3% 올리겠다, 쿠팡도 9.8로 올리겠다, 요기요는 12.5% 올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정부는 좀 어떻게든 지원도 해 주고 깎아도 주고 해 보려고 하는데 업계는 인상 경쟁을 하는 거지요. 정부를 뭘로 보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재를 하시든가 조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조사 권한을 공정위가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조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현장을 조사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세요. 어떻습니까? 좀 강력하게 하시라는 뜻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가 법적으로 제재……

○허종식 위원 소상공인 신음 소리 안 들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는 소상공인의 신음 소리를 전달하고 관련돼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법적으로 조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꼭 좀 조치하시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배달료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중기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위메프와 티몬 관련 중소·소상공인 피해 현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한번 중기부의 보고를 별도로 청취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보고서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들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대체……

○위원장 이철규 보고서로 대체해서 질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중기부 그리고 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티몬, 위메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 피해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저희가 관계부처 종합회의를 했을 때 업무 분담을 했고 그게……

○장철민 위원 그래서 중기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파악이 되었을 때 미정산 부분을……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직접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때 관계부처 회의에서 저희가 금융이나 이런 쪽에, 이 미 금감원에 민원 창구 데스크가 생겼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지원 금액이 7월 25일 기준으로 2134억 이다, 앞으로 커질 거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될지가 지금 정책 협의를 하고 하는 데 되 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시는 노력을 제 생각에는 다방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얘기하신 대로 금감원 통해서 PG사나 이런 데에 매출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티몬, 위메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피해 기업들한테 뭔가 소통 창구를 열어서 피해 접수의 여러 가지 양태들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여러 차원의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피해의 규모든 상황이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대책이든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중기부는 그냥 금감원과 PG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관계부처 회의를 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계부처 회의를 하는 이유를 여쭙보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도 업무 분장을……

○장철민 위원 왜 중기부가 그냥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장철민 위원 왜 적극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는가라고 여쭙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업무 분장을 한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업무 분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민원 창구는 금감원에 열려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산 지연 사태가 아까 23일부터, 그러니까 초반에 전산 장애라고 했고 정산 지연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23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피해 고객들 얘기 들어 보면 19일부터 완전히 다 중단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중기부는 중진공이나 소진공처럼 사실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하는 기관들 그리고 늘 항상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 너무 당연히 소통 창구부터 열었을 것 같아요, 빨리 피해 접수를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소통 창구를 저희 사업에 했던 것은 유통센터에 열었고요. 소통 창구가……

○장철민 위원 유통센터에는 아까 얘기한 판판 그것만 하시는 거라, 실제로 피해 기업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 보니까요 사실 직접 중기부한테 얘기할 채널이 없어서 거기가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철민 위원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기업들을 만났거든요. 장관님 아직 안 만나셨잖아요? 제가 좀 만나서 몇십 개의 기업들한테 의견들을 주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장철민 위원 그랬더니 중기부에 지금 얘기할 채널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중기부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설명은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끝나고 몰아서 좀 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하나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업들이 어디에 피해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창구를 좀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실은 기업들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어제 대책 내셨잖아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중진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하나랑.

사실 이 대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중진공도 있고 기업들 대출하는 것 3000억, 2000억, 600억 이렇게 있던데 예를 들면 중진공·소진공 3000억 이 대출, 언제 신청받고 언제 시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일단 미정산과 관련된 이 리스트가, 2134억의 리스트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스트가 확정되면 8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래서 며칠쯤 걸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8월 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일주일 이상 걸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철민 위원 일주일 안 걸리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 기업들이 저한테 다 준 얘기거든요. 제가 이따 장관님 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하루하루 선정 산받은 것들 대출금 마련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중기부에서 대책을,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예측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매출채권이 앞으로 10억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어제 발표하신 대책 시행하는 그사이의 일정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그냥 정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그 일주일 사이에도 정말 엄청난 기업들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시간 있으시니까 '이 대책은 며칠쯤 걸릴 거고 이 대책은 며칠쯤 걸려서 이 날짜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지금 기업들이 이것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야 '중기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이라도 단기 대책을 기업 차원에서 해야겠구나'라고 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요.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고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업무 분장을 내부적으로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나온 자료에 보면 민원 접수 창구는 소비자원과 금감원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금융위에서 지원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기부에서도 물론 창구를 열고 '오십시오'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2134억이라는 이 돈이 확정되었다, 미수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티몬이랑 위메프의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무장관으로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여러 가지 회의체를 움직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차원에서는 정부의 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 저희가 그 리스트에 대한 걸 받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0억에 대해서는, 1700억과 3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진공하고 중진공을 통해서,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공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공고하고 알려 드리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은행을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준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직접대출이 될 것 같고요. 소진공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서, 이게 정부



의 지원을 공지하는 시간에 저희가 충분하게 알려 드리고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서 잘 살피고 면밀하게 살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하여튼 뭐 처음에 약속은 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것 제가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자료를 건네며)

기업들이 하루 사이에도 저한테 이만큼 준 거라서……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입니다.

오전 질의 때 동료 위원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보고서 발표한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히는데요. 2020~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의 정부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3조 2000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렇게 감사 발표가 된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다르게 2022년까지 4년 연속 연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은 곳이 17만 9000개 사업자, 2조 1000억 원에 달했고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손실이라는 명목으로 546억 받아 갔습니다. 또 어느 태양광발전소는요 2021년 5월 달에 개업한 이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아 갔고 또 5·6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확인도 하지 않고 400만 원 그냥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검증하거나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탓에 36만 6000개 사업자가 피해 규모 이상의 지원금 2조 6847억 원을 받아 갔으며 심지어 피해액보다 5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곳도 6만 8000개, 8527억 원이나 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스물한 곳까지 수천만 원씩 부당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국민 혈세로 정말 돈 잔치를 벌이고 세금이 줄줄 땀다라고 생각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관님,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초유의 사태에서 폭넓게 또 신속하게 지원하다 보니 설계 부분이라든지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관련돼 있어서는

다음번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처럼 신속한 걸 핑계로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신속한 게 저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지급 같은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굉장히 면밀하고 꼼꼼하게 제도도 설계해야 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으로써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도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비교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까 장관님 답변 과정에 21억 환수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 엄청나게 줄 줄 됐는데요. 이것 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21억은 최소한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제도상의 설계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환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법을 포함해서 보면서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일준 위원 진짜로 지원받아야 할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많은데요 이런 것 환수해 가지고 그분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혈세 3조 원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은 하반기에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장관님 말씀처럼 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손실 규모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확인 절차를 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면밀하게 챙겨서 금번에 감사원 결과를 잘 보완한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장관님,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상공인하고의 연결 중개자가 중기부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요……

PPT 2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유통 플랫폼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점 지원 관련해서 역량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재정건전성이 지금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재정건전성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두 회사가, 티몬하고 위메프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본잠식 상태였고, 아까 어떤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경영 상태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PPT 3번 보여 주시면요, 이미 1년 전부터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한 4월 달에 여러 가지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이미 위메프 지정 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는 감사보고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아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그것은 최근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중기부가 왜 이것을 몰랐습니까? 지금 이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작년에 감사보고서에 이미 나왔다, 그런데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이커머스 업체들의 어떤 성장이 사실 자본잠식이 있는 하에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랫폼 회사를 할 때 보지 않았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몰랐어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 내용을 몰랐다,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장관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모집공고 선정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경영 상태 평가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거래는 신용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신용거래지요. 신용거래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신용거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신용거래 기본이 뭐니까? 신용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 상태를 평가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받든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 안 받을 경우에는 신용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데 신용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은행 예금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자본이 어떤지 아니면 자산 상태가 어떤지 그걸 최소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본잠식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좌나

예금 이런 상황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장관님, 이번에 총피해액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다 합하면 최대 1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다. 둘째, 이미 이 상태는 신용거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신용거래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용거래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신용거래에서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담보가 없으면 신용거래에서 예금이나 자산이나 자본 상태를 따지도록 돼 있는데 아무런 그런 항목이 없다. 저는 이것을 심각한 업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위메프 사업에 해당하는 여러 중소·소상공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아직까지 미정산이 되어 있는 금액들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점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메프와 쿠팡에 입점해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언주 위원 중개를 하시잖아요, 중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개를 할.....

○이언주 위원 중기부에서 중개를 하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메프 그 분야.....

○이언주 위원 중개를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점하는 업체들이 중기부를 믿고 들어오는 거지 그럼 누구를 믿고 들어와요. 중개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거기에서 들어온 40억 중의 20억은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데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점을 중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도 지금 더 넓게, 저희가 중개하지 않았지만 이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11%가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여러 가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언주 위원 수출입 거래를 할 때 LC를 열더라도 그 안에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LC를 열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용거래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어떤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커머스가 대개 쿠팡처럼 사실 자본잠식 과정을 통하고도 성장하는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챙겨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서는 저희가 빠른 정산과 특히 에스프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연주 위원 아니, 이걸 제가 볼 때 중기부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연주 위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제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추가 때 또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인천 서구갑의 김교홍입니다.

장관께서는 외교 전문가신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잘, 어려움 없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홍 위원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7월 3일 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여기서 25조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중기부에 문의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25조 원이냐’ 그랬더니 중기부의 직원 말씀이 ‘기재부가 추산한 금액이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보도자료 한 장을 줬는데—기재부에서 낸 것 같아요—금융 지원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 원, 재정 및 세제 지원 1조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얘기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대개가 하던 거예요.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대폭 확대, 연장기간 확대, 일몰제 구제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25조 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중소기업부의 얘기 좀 듣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7월 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은 기재부와 함께.....

○김교홍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재부와 함께 전 부처.....

○김교홍 위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전 부처의 종합대책입니다. 저희 중기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하지만 저희……

○김교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데 끊지 마시고. 장관님은 하실 말씀이 많은가 봐? 왜 얘기하는데 자꾸만 끼어들어 오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교흥 위원 제 얘기는 직원이 그냥 일반 직원도 아니고 고위직에 있는 직원의 얘기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홍보식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 보면 거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은 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또 소상공인의 지원책을 중기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20년 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나 지금이나 아주 많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중기부 혼자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장관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면 현장을 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중기부의 역할을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이 자료로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출을 일부 이자를 좀 저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대출에 대한 부분들 지원해 주고,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대출을 안 받은 자영업자도 30% 있어요, 또박또박 세금 내면서.

문제는 뭐냐? 소비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 이거야. 매출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진작시켜 줘야지 대출을 자꾸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전에 각 시도에 국정감사 가 보면 시도지사들도 다 찬성을 하고 여당에 있는 위원들도 찬성하는 게 지역화폐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념화가 됐어, 이념화. 지역화폐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각종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서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안 하고 자꾸만 무슨 금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기재부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대책으로 한 수개월간 함께 노력한 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기부가 현장에서 발로 뚫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한 대책입니다.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지금 늘어나는 연체, 특히 지금 취약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10%를 넘으면서 늘어나는 채무에 있어서의 부담을 감하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자금, 저희 중기부에서 소진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정책자금 부분, 저희가 한 8.1조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정책자금의 대상자들을 전부 다 상환 연장을 5년간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지역신보에서 전환보증을 통해서도 5조, 그래서 13조의 금융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부담을 좀 완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행에서 하였던 다른,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들께서 정부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채무를 조정받으시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가 곧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환보증 시작이 되고 8월 16일부터는 저희가 지금 상환 연장을 위한 것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김교홍 위원 장관님,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매출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지금 지원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원책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내용이 없다고 해서요.

○김교홍 위원 아니,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 증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홍 위원 그 대책이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매출 증진 요소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뵙고……

○김교홍 위원 어디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자료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더 상세한 내용 김교홍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 아까 야당의 이언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최대 1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피해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지고 그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여기 여야 의원실에 전부 다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가능한 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현재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을 보면, 여기 9조 2항에 보면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2조 1항에 보면 재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어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재창업 지원도 가능하고 선제적 구조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여력은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저금리 대출해 주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예산 규모가 지금 조금, 저희가 전반기에 많이 소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규모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지원을 하는 문제, 오늘 주호영 위원님이나 서일준 위원님께서 전부 다 데이터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61조 4000억 지급했던 것 그다음에 이게 감사 결과로 3조 2300억가량이 잘못 지급된 것까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지원이 3000억,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된 게 2조 6847억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0억가량이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이 지원된다고 할 때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결과 보고받으셨겠지만 제대로 지원된 게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한 3조의 예산은 조금 미흡하게 지원되고 잘못된 지원으로 저희가 감사 지적이 있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부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사전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같은 법 시행령이라든가 고시에 따라서 손실보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규정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고동진 위원 그렇게 시행령이라든가 디테일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시행령에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까지가 다 담겨져 있고 분기별 고시에는 보상 대상, 보상금의 산정, 지급 절차, 보상금의 정산·환수 등이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정부 측이 임의적으로 일곱 차례에 따른 시행 공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행정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법률이 있으면 정부가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대로 규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취지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행정규칙까지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행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코로나 시기의 재난지원금은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고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앞으로 또 다른 국고 낭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정부 측이 하위 법령을 제대로 적기에 또는 개정해서 행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은 보시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참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금년 들어서 급증하고 있지요. 특히나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 이상이거든요.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시의상으로 어쨌든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이 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3000만 원 대상 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신청자는 제가, 3000만 원일 때……

○이재관 위원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한 600억, 650억 정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신청자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그 대상자들도 148만 명이나 되는 데서 70만 명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그 대상을 확대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철거비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거의 다 소상공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비율이……

○이재관 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중기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통계를 받아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2년 전 통계만……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과학적인 정책을 전개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러한 행정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신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저신용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글썄요, 결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매출액으로……

○이재관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 예전에 있었던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 기준 마련하고…… 빨리 지원해 달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그중에 고령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수당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려서 교육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역할도 좀 하고 그런 건데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수가 그중의 한 1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의 규모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 평균이 보니까 1억 5000, 한 1억 8000 되는데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갖

는 것은 그보다 67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한 2억 4700만 원, 한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후 대책이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벌여 놓은 자산 이런 것들 또 가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 성패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교육,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 정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식 데이터는 2021년, 2년 전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또 받아야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몰라서 이것을 못 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중기부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요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인구절벽 문제도 심각한데 인구절벽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주거 문제하고 고용안정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를 이걸 내 일 아니야라고 접근할 일이 아니고 중기부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서다 이런 각오를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잘 아시는 대로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실제로 거기서 고용을 80%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다 대기업으로 만들 수 없다면 중소기업의 교섭력, 협상력, 경쟁력 이런 걸 높여 주는 게 장관으로서 주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PPT 자료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우리 중기부에서 역점으로 했던 숙제 중의 하나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납품단가 연동제를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평가, 성과 이런 게 좀 점검된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 단위로도 지방청을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있고 연동해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를 늘려 가기 위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위원** 제도가 도입될 때 반짝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상징적 사례들과 추이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2019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소비자 범위에 대기업을 끼워 넣기를 하면서 사실상 공정위가 들어서 그 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우원식 의원하고 또 존경하는 여당의 이인선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가지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고 소비자 범위에서 대기업을 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이 될 뻔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정위 등에서 로비를 심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중기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또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잘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국정감사 때—중기부 전임 장관님입니다—전임 장관한테 공정위와…… 공정위는 반대 입장이 뚜렷합니다, 여러 가지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장관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뛴 흔적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법제처에 의뢰해서 대기업을 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였는데 마찬가지로 법제처에서는 ‘이것은 정책입법 사안이라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다음 장 한번 봐 보세요.

작년 연말에 이인선·우원식 안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 있을 때 공정위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다녔습니다, 위원들도 설득하고. 그때 중기부는 뭐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때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아직 장관을 수임하기 전이 아니었나 싶어서요.

○**김성환 위원**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교섭력, 경쟁력을 높여야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단추 중의 하나가 풀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중기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데 저희가 입법을 하더라도 또다시 법사위에 가면 공정위가 세계 로비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지금부터 야무지게 준비하고 해외 입법 사례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게 대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해치지 않

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논리를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이게 어쩌면 장관님이 해야 될 임기 중의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 견해,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안의 취지들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오 장관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빨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갖고 말씀드렸던 것은 중소기업부에 조금 더 세밀함을 필요로 하지 않나. 아니, 온 국민이 지금 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어떤 입장이고 무엇을 얘기를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없고 그리고 또 인사말에도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본이 됐다고 치더라도 간지를 넣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 사안인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악화라든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거의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성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런 겁니다. 앞서서 주호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또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요 제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때도 지금 감사원 감사에 나온 대로 제가 모든 증거들을 다 명징하게 밝히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장관 답변이 뭐였었냐면 ‘조금 폭넓은 지원 형태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 가지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주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장관님의 답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제도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제도의 설계가 그렇게 잘못되어…… 자, 그러면 이것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님. 3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자, 다시 한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감사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지원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정 손실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잘못된 지급. 부정은 22억.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부정수급은 21억으로 나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부정수급은 21억이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3조 2000억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3조 2000억입니다.

○김성원 위원 3조 2000억이 잘못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받아들여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감사원에서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책임 규명보다는 그 시기에 어떠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겠다라고 감사원에서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한 감사였습니다.

○김성원 위원 감사원에서의 감사 범위는 그렇게 정하고 가 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했을 때 그러면 책임은, 만약에 국민……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편하게 얘기합시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됐어요, 잘못 지급이 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소재는 가려야 하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책임의 문제는 저희 중기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면밀하게 설계하거나 사후에 검증하거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당시 장관은 아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 제도의 보완 방식으로 감사원에서 저희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도 보완의 방식과 함께 꼭 수급의 잘못된 오류가 완전하게, 도덕적 해이에 의한 오류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환수는 지금 21억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21억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21억 더 해 봤자 거기서 일이십억 더 하는 거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면밀하게 보조금법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누가 이해를 할까요, 국민들이?

이 부분 제가 이따가 오후질의 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중기부나 공정위, 금감원 등이 오늘 자료를 주신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게 물론 제가 정확하게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있었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부 입장에서는 입점한 중소기업,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입점한 기업들 속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한테 왔을 때만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온 게 없지요.

○김한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아무것도 정보성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김한규 위원 아니, 그 앞에 미사여구들을 빼고 그냥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5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나중에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어떤 것을 중기부가 노력할 수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진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정산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중개형 이커머스 업체들, 어떻게 중기부가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개형 이커머스 자체는 중기부 소관은 아니라서 지금 산업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산업부가 막을 수 있게 돼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이커머스 전체가 산업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관련해서 중기부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별로 없고 앞으로도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의무적인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60일이 아니라 좀 당겨서 단기간으로 정하거나 에스크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위 소관 법령인데 정부 부처에서 논의하실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중개형 이커머스 업체에 그런 의무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업체들도 다 에스크로에다가 자금을 집어넣고, 현금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런 새로운 규제를 이번에 문제된 2개 업체 때문에 모든 중개형 이커머스 업체한테 다 부과하실 예정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요 지금도.....

○김한규 위원 그게 규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스크로를 갖고 있는, 제대로 갖고 있는 기업체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인센티브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게 되는, 지원하는 부서이니까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사후 대책도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그냥 여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정부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인 대책인지를 지금 동시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잘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다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팁스 확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고 대통령께서 1주년 국정 성과로도 팁스 확대를 강조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올해 1월에 금년에 과업이 종료되는 팁스 대상에 대한 사업비 20% 삭감하는 걸 말씀하셨지요,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반발을 하니까 바로 2주 뒤에 장관님이 직접 전략회의 열어서 다시 100% 그냥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삭감 자체, 20% 삭감은 예산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발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또다시 6월에는 내년도 종료되는 과업은 팁스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써 오락가락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산 부족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산 부족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니까 중기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정부의 예산안 자체의 문제인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했었는데 그 공지 자체가 다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5월, 6월 전에 이미 공지를 그렇게 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공지는 했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내년도에 과업 종료되는 팁스 지원금 중단하겠다고 하는 걸 미리 발표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단이 아니라 내년도 과업은 20%를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운영사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바람에……

○김한규 위원 언제 결정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하기는 1월 달에 했는데요. 1월 달에 하고 공지를 했는데 그 자체가 개별 기업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신규 팁스는 작년보다 늘었지요? 40% 늘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신규 팁스 늘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협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결한 스타트업한테는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새로운 팁스는 또 사업을 해 가지고 금액을 40%나 늘렸습니다. 이 업체들은 스타트업이라 이 금액이 본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금액이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준 금액, 물론 중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삭감하니까 다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 내년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 못 받고 있고 관련된 경영 못 해 가지고 회사가 당장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 내년에 지급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분들, 급한 업체들은 뭔가 숨통이 트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철규 답변하세요.

○김한규 위원 대책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됐지만 입장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고 1월 달에 R&D 보완 방안을 하면서 팁스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을 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적은 예산이 있으니까, 원래 예산서에는 80% 예산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25년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의 일부를 25년에 같이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사를 통해서 통보하였기 때문에 팁스 기업들 모두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끝내는데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는 문제지 스타트업하고는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 부분은 계약상에서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김한규 위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지급한 건 우리 사정인 거지요, 정부 측 사 이드.

○위원장 이철규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해 주시길 바라구요.

○김한규 위원 아니, 분명히 입장을 바꿔 놓고 안 바꿨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홍성군예산군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큐텐,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 가까운 지인, 이커머스 전문가와 또 셀러로 참여하고 있는 제 후배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저에게 SOS를 쳐서 제가 이렇게 관련 사건 등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금융 당국에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업계에서 얘기하는 정리한 부분들을 내서 아마 일부 지금 조치가 진행되는 걸로 있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좀 챙겨 봐야 될 부분을 중기부에서도 유심 있게 들여다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티몬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액터가 4부류 정도 되는데 소비자와 결제대행업자가 있고 이번 사태 주범인 티몬이나 위메프가 있고 그리고 셀러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분야에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앞으로도 불어날 텐데 그래도 정부가 소비자라든지 상품·서비스 공급자들, 최고 힘없는 이분들에게 중기부에서는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읽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지를 제가 중기부에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강승규 위원 첫째, 이 사태의 피해액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티몬과 위메프의 월 거래액이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셀러들에게 대금 지급 결제하는 것이 40일에서 70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된 것들, 그 이전에 한두 달 전에 거래된 것과 셀러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들, 티몬이 얼마나 돈을 빼돌렸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태의 지급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장 우선 구제받아야 될 텐데 티몬이 우리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돈을 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지급보증 서비스 제대로 집행되도록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가 첫 번째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PG사(결제대행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 가능성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카드 할부 등에서, 이들이 할부로 구입한 것들 이런 부분을 취소하고 중간에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할부 판매한 상품들에 대해서 철회라든지 항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카드사 등이 상당히 지체시키거나 고의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 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소비자들이 할부 상품 등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소비자 편에서 우리 정부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세 번째는 또 중재 신청, 온라인 결제 취소 중재 신청 등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카드사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해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만큼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서 온라인 중재센터라든지 중재 신청 이런 부분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상담사, 아까 야당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던데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티몬 계좌를 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티몬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

이럴 때는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접수받아서 계좌를 정부가 어떻게 중지시키거나, 물론 법원에 보전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어떤 상황에서 소비자들이나 공급자들이 최대한 그래도 덜 피해 보고, 그러니까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등을 결제대행사들은 아무래도 늦추려고 할 거고 방해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모두 다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행업계에서 여행객 상품이 한 1000억 정도 추산된다고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사실 저도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미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월부터 이렇게 할부로 들어왔는데 이 사태가 나니까 여행사에서 이것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한 5개월 봐 온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이, 올해 휴가는 날아간단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행사가 직권 취소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상품으로 이월해서 계속 보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관계부처 회의에 제가 적절하게 잘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이제 업무 파악은 얼추 다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혹시 추자도라고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추자도, 제주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가 보신 적은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가 본 적은 없고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띄워 놔습니다.

좀 불쌍사나운데요. 추자도 항만 사진 여기 보면 중기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사용한 항만공사가 콘크리트 불량으로 이렇게 표면에 균열이 가고 그것이 아주 속 깊이 바닥까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네모 상자는 거기가 항만 확장공사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이런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장기간 접안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항인데 배들을 접안을

못 하니까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만일에 태풍이 몰려온다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닷물에 늘 노출되는 곳이라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정호 위원 어찌하려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지방청에서 관련 상세보고를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재검토한 이후에 의견을……

○김정호 위원 이게 단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30분 이내에, 늦어도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다 도착하는 곳에, 거의 독점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경우는 원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가, 육지도 아닙니다만 보길도·노화도에서 25km 직선거리. 그런데 이 레미콘사가 있는 곳에서 육상, 다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추자항까지 도합 19km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당초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KCS,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르면 늦어도 1시간 30분 내에 도착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그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3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화가 일어나고 아까 사진처럼 이런 콘크리트 불량도 생기는 거지요.

문제는 이게 몇 차례 현장 검증을 같이 했어요. 당연히 문제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정작 광주·전남중기청에서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레미콘사만 두둔한 거예요. 이 공사의 발주처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청이 현장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해서 판로지원법상 하자가 생기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는 관급자재 사용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협의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다 불인정하고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정말 살펴보셔야 될 게 이런 일이 비단 여기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들도 독과점 상태에 있는 곳들은 이런 갑질이, 횡포가 허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보호할 것만은 아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요 이것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따른 이런 관급자재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제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박상웅 위원 모든 잘못이 다 장관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 대표님 나오셨어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나왔습니다.

○박상웅 위원 나와 보십시오.

중소기업지원유통센터에서 2019년도부터 티몬, 위메프 쪽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 경영 상태에 빠져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가 2020년도였었는데요, 그때 이미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가 있었던 것을.

○박상웅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할 당시에 책임 라인에 계셨습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작년 4월 15일부로 왔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그 전임자 시절에 결정된 일이지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박상웅 위원 그러면 현재의 구조로 봤을 때 그 전임자분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이런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대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일단은 중기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요, 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지금 제가 2020년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있어서는 그 사항을 중기부에 보고를 했을지 안 했을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박상웅 위원 2020년에 이 사업 결정이 됐지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박상웅 위원 그때 중기부장관님이 박영선 의원님이고 이 부실이 키워지는 그 과정에 권철승 장관님이 또 계셨고 그 이후에 이영 장관님을 거쳐서 오늘의 오영주 장관님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의 오영주 장관님이 앞의 세 분 장관님이 모르는 일을 미리 파악해서 판단하고 적합한 응답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박상웅 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

여기 혹시 공영홈쇼핑 대표님 오셨어요?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예.

○박상웅 위원 공영홈쇼핑은 티몬과 위메프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지요?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저희들은 지원보다 API 연동을 통해서 저희 입점한 업체들 상품을 제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플랫폼하고 연동 제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그 공영홈쇼핑과 위메프가 서로 손을 잡고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할 때 공영홈쇼핑의 대표는 지금 대표님이십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19년부터 제휴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정책사업하고 다르게 별도로 MOU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9개와 쿠폰 판매해서 연동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영홈쇼핑을 경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은 그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예, 연동은 19년부터 했고요, 저는 21년 9월부터 했으니까

그 과정 중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금 공영홈쇼핑에 위메프가 8억 4000만 원 정도를 미정산하고 이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월분 미정산 금액이 8억 4600만 원, 8월분 미정산 금액 예상되는 게 9억 5500만 원, 9월분 3억 4000만 원까지 더 하면 공영홈쇼핑이 받아야 될 정산금은 21억 4000만 원인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돈은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우선 저희들 중소기업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 확정 후 10일 안에 먼저 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미정산 금액 8억 4600입니다. 그래서 칠팔 월 했을 때 한 12억 정도, 한 20억 정도 미정산입니다. 예상 금액까지 포함하면 21억 정도 되겠고요.

○박상웅 위원 21억 4000만 원.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조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압류 조치부터 해서 법적 조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해소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티몬 사태가 일어났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책임 있는 각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삼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피해자 중에 하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커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예,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사과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

○박상웅 위원 그래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혼자 답변하게 만들고 다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저희들 자체의 미수 부분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미수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겹잡을 수 없는 사태로 커진 것 아닙니까?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저희가 전체 확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솔직히 파악은 안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 저희 관계돼서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출신 광상언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장관님께 여쭙 봐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괜찮습니다.

○**광상언 위원** 벤처기업의 지원이 국가경제 미래에 중요한 것처럼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보호는 국가경제의 현재, 지금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5분의 2가량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장관님께서 그 관점에서 꼭 중기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상언 위원** 하나 또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오세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달의민족 관련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배달앱 관련 1위가 배달의민족인 건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광상언 위원** 2위가 지금 쿠팡이츠라고 합니다. 이 배달의민족이라는 앱은 앱 시장에서 점유율 61.4%라고 하는데 이곳이 지난 7월 10일에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곧 다음 달인 8월부터 음식값을 기준으로 6.8%에서 9.8%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민은 한 2019년 정도에 독일의 회사가 인수를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광상언 위원** 그런데 그 독일 회사가 지난 7월 7일경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반경쟁적 계약 혐의로 4억 유로, 한화로는 600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이 사실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수수료 인상 사실은 저희가 언론에서, 상생협의체와 관련한 토의를 하면서 알았으니까 그게 언론에서 있는……

○**광상언 위원** 7월 10일에 언론에 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7일에 이 독일 회사가 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거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혹시 그 결정문 받아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광상언 위원** 아니, 그 벌금 부과 때문에 수수료를 올린다고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상언 위원** 빨리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뭔지,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기부 차원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보냐면요,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1만 원짜리 국밥을 지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만 원짜리 국밥을 팔게 되면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게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계산하게 되면 부가세 10% 그러니까 1000원 내야지요. 주민세 1%, 100원 내야 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대략 한 2%로 계산하게 되면 200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가게를 오시게 되면 1만 원에서 대략 한 1300원가량 공제한 8700원 정도 남습니다. 다른 세금, 부담금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민족 어플로 계산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가세 등등의 공제에 더해서 배달비 그다음에 결제대금 수수료 등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공제되는 금액이 4700원가량이에요. 그러면 5220원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과 수수료로 내는 거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국밥집 사장님이 한 달에 몇 그릇 팔아야지 그 가게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까지는 계산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에 가게 임대료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직원 1명 급여 200만 원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오시면 575그릇을 팔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870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배달의민족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958그릇을 팔아야 돼요. 거의 2배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셨어요? 중개수수료가 가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 대책을 지금까지 중기부 차원에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가게별로 조금 다르다고는 알고 있고요. 또 그게 소액으로 팔 때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중기부에서 지금까지 대책 마련한 적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징금 현황 등을 여쭙본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볼게요.

장관님, 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마 장관님께서 이 법,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의무고발 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상언 위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의무고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이 수수료를 높인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장관께서 추후에 이러한 소상공인들, 음식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이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생각 없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 제도에서 중기부장관이 의무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위가 감사를 하고 미고발한 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 올 때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법률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만약 재심의 과정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난 정부 때는 매년 10건 정도 고발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에 불공정거래가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곽상언 위원** 면밀히 적극적으로 살펴란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데 말씀 주신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위에서 먼저 미고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만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산하기관장님들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팁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보겠습니다.

R&D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작스러운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기도 했고 세계적 흐름에 상당히 역행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상당히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살폈던 정부 R&D 예산이 올해 들어와서 4조 6000억이 줄어든 그 상황들을 표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과학기술계만이 아니라 큰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이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삭감액을 보시면 2023년도 1조 7000억에서 24년도 1조 3000억 정도로 해서 약 4000억 가까이 무려 한 25% 정도가 줄었습니다. R&D 전체 예산 삭감보다 중소기업 R&D 삭감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제 수는 뭐 다른 요소도 있겠습니다마는 무려 한 4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스타트업 R&D 예산인 틱스는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틱스 선정 기업 중에 올해 지원받기로 한 사업의 20%가량이 지급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는데 지난해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벤처기업 599곳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것 예산 자체가, 정부 예산이 삭감돼서 왔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처음에는 80%만 지급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부로서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에 배포한 R&D 협약 변경 매뉴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세 가지 선택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액의 협약 변경을 수용하는 것, 두 번째는 자체적인 중단 신청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불응 이렇게 세 가지인데 불응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고돼 있어서 감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운영기관에서 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그 부분은 틱스 대상은 아니고요. 중단 과제에 대해서, 틱스는 유지 과제였기 때문에 틱스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100%를 다 드리는데 조금 이연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중단 과제가 3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단 과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약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서왕진 위원 그러면 아까 599곳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599곳 스타트업의 틱스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약 방식이 대략 한 이삼 년 정도의 다년 계약 방식이고 그 계약에 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직원도 뽑고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갈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산이 갑자기 줄게 되면 계속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어쨌든 현 정부의 R&D 삭감의 유탄을 맞아서 어렵게 형성해 가고 참 버티기 힘든 상황을 잘 끌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월 31일에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그래서 감액

하지 않고 100%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100% 지원한다는 취지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마무리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20% 정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제는 25년도, 내년도 예산 증액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부자 감세라든지 경기 불황 때문에 작년에 세수 감소액이 무려 56조였고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감소를 했는데 작년 대비 5월 현재 9조 1000억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팁스 예산을 내년도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팁스는 R&D다운 R&D의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R&D라서 재정 당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장관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열심히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 소상공인 모두가 너무 힘든데 뭔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상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저희 팁스 R&D 599곳의 모자라는 예산은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100%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약간의 통보의 문제로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 단계를 하고 있고요. 그 어려움을 살펴보고 또 정부가 어떻게 저금리 용자 같은 지원들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지금 약속 꼭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장관님,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아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박지혜 위원 재생에너지 조달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같은 탄소중립 경영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기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준비된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게시된 홍보 게시물입니다. 장관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CBAM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 말씀처럼 2026년에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비유나 표현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먹살 잡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탄소중립 경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무역협회가 올해 초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6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RE100 요청을 받았을 때 ‘사업장을 이전하겠다’, ‘해당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 기업에게는 굉장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진국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기관이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평가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일례로 ISSB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FRS S2 기준에 따라서 2026년경부터는 원자재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될 것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중소·중견기업들도 거래 상대의 요청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대비를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 아시는 게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실 지금 탄소중립 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중기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한 310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지혜 위원 31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박지혜 위원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6개 정도의 사업을 제시했고요, 전체 예산이 1719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 규모나 사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부분을 살펴보면 0.5%, 0.9%인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 드린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 0.9%인데요, 집행 예산을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사실 기업에게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계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맞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CBAM 대응은 지금 3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저희가 5월 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제출된 계획에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것은 아마 기업들과 협의하고 나가고 컨설팅하고 하는 거랑, 이 CBAM의 350개국은 EU에 바로 통보할 수 있을 만큼의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겁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 이제까지 5월까지 집행된 것이, 아마 최근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CBAM 대책은 지금 코앞에 다가왔고 또 우리 중소기업 중에 1300개 정도의 기업들 중에서, 특히 355개 기업이 크게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 기업들이 보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CBAM 사업입니다. 제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이번 티몬·위메프 사건 관련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직 안 가졌다고 그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원이 위원 사건이 발생한 지가 벌써 일주일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장관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뭐랄까, 중기벤처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애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큰 책임감과 애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현장을 평소에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현장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챙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장을 챙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이 하셨던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이언주 위원님이 띄웠던 23년 위메프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답하시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이때, 이 상황이 있었다는 때까지는 장관직 직전이어서 제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이것 4월……

○김원이 위원 장관직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장관님 외에 다른 차관님이나 실장님, 담당 국장님 이런 감사보고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보고서가 아마 오픈된 것이 4월 9일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요, 잠깐 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보십시오.

이것은 티몬에 대한 감사보고서인데, 이게 22년도 것인데 23년으로 잘못 표기됐네요. 22년 것입니다. 저기 표기가 23년 4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감사보고서 표를 보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22년도 티몬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22년도 티몬 보고서에도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장관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취임이 늦어서 몰랐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다른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실장님, 이런 보고서가 22년부터 즉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중기부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저도 이 보고서가 나올 때는 중기부에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중기부는 왜 있습니까? 차관·장관 바뀔 때마다 모든 지식과 그동안 쌓아 놓은 경험이 사라진다면 그 부처 왜 있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된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업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간의 평가와 그간의 실적과 그간의 경험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중기벤처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까? 지금 발언할 때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최소한 22년부터 시장은 경고등이 아니라 멈추라고 적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건에 대

해서 ‘사기적 행위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을 빌자면 중기벤처부는 티몬·위메프 사기 행각을 몇 년 전부터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고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동조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중기벤처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협업을 통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23년도에는요 80억을 배정했고요, 올해도 80억을 배정해서 약 12억이 집행됐습니다. 정부 지원금 줄 때 약 90억 원 정도가 2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 지원 대상에 대한 재무상황이나 사업 시행 능력, 리스크 이런 체크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24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구조 때문에 정계를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김원이 위원 끝나고 말씀하세요, 이제 30초밖에 안 남아서.

윤 대통령께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현행 대규모유통업 공정 거래법 8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이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유통업자 수준에 맞는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번 상황을 저희가 겪으면서 전체 정부 TF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의 구조를 단단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 부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기부 예산이, 이 사업은 티몬이나 위메프에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입점에 들어가는, 소상공인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원이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입점한 기업들은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티몬에 가입하고 위메프에 가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정부의 예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을 것 아니에요. 중기벤처부가 지원하는 예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그 사업을 믿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보고 입점을 더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져요, 사기 피해 규모가. 그것은 왜 생각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플랫폼 사업은 40개가 되겠습니다. 40개이고, 저희가 티몬이나 위메프에 하는

사업들의 소상공인 숫자는 솔직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기부가 한 예산 사업에서의 피해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책임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저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 추가질의하실 분 바쁘신 분이 계시니까 보충 때 더 계속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티메프 사태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무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자체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입점한 판매업자 또 판매업체 셀러들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부가 중개를 했던 지원을 했던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차후 보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CBAM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는데, 350업체라고 그러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55개 업체가 지금 대상 업체입니다.

○**나경원 위원** 355개 업체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돈을 나눠 주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소·소상공인들의 진짜 애로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난 부분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력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정하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력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은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도입 확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는 E-9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티오를 요청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만 명 이번에 티오를 하는데 전체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9만 명 티오를 확정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실질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저희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7월 초에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보면……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것은 아마 업종별·지역별 구분 임금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내국인 동일 수준의, 인건비 수준의 한 94.8%에 해당한다 하면서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제의 2순위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한 3% 정도 담당하고 있던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은 위원님 잘 하시겠지만 ILO 협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ILO 협약을 저는 그동안 부처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계속 답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별이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요, 이 차별이 무조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를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 임금의 80% 정도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80%는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생계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분 적용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기부가 인력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저는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재래시장에 자주 가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골목식당 주로 이용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주로 이용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외교관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일정상……

○박성민 위원 재래시장이나 골목식당이나, 아까 모 위원께서 이야기하던 국밥집은 잘 안 가 보시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상 자주 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가능하면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돼지국밥집에 참 자주 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심각한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나 공직자분들께서 영세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첫째는 장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자가 높아서 이자 갚을 길도 없고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이자도 못 갚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분들은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내놓는 정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4년에서 5년, 1년 연기해 주겠다’ 그런 정도를 발표하시는데 제가 과연 그분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또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은데,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취약·한계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40만 정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채무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 대책에 채무 조정 문제를 담은 것인데요, 더불어서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을 제가 발로 좀 뛰면서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문현답이라고 장관님 이런 말씀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분들이나 어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어려운 그 현장의 사정을 과연 알고 있을까…… 정말 열 번 백 번을 가셔도 장관님 정도 되시면 식사를 하루에 한 번쯤은 골목식당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 각오로 제가 다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 규모가 얼마쯤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52조입니다.

○박성민 위원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소상공인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87만 명이나 무려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출 부진도 70%.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25조 규모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일부에서는 ‘재정지원은 1조 원에 그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1조 원이지만 이게 채무조

정 한 상태가 14조, 새출발기금까지 24조의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상환 연장이 8조, 전환보증도 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5조.

○박성민 위원 충분히 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행을 빨리하면서 챙겨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상환 연장 이것도 4년에서 5년 하는 게 아니고 한 칠팔 년 정도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제도를 5년으로 확장을 하면서 하게 되면 8년 효과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상환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일시상환 유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폐업일 경우에는 일시상환 유예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이 싹틔줄이 다 죽고 있으니까 대폭적으로 지원을 정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현장을 더 자주 찾고 정말 어떤 것이 더 어려움이 있는지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보충질의를 바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대신 3분 넘기지 마십시오.

○박형수 위원 불공정 경쟁이야.

(웃음소리)

○김성원 위원 최고위원만 떨어져 봐.

○김원이 위원 최고위원이니깐 좀 봐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너무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산자위에서 제1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요.

질의하십시오.

○이언주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의 티몬, 위메프 사태는

기업 탐욕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소상공인과 티몬과 위메프 연결 중개자가 중기부인데  
요, 여기의 입점 지원 홍보물을 보시면……

홍보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홍보물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NFAN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소상공인들이 입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건 좋은데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그러면 여기 이것 보고 들어오는데 티몬이나 위메프의 신용상태나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홍보를 했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불 처리가 될 것이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 처리가 되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이 환불 처리해 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들 피해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상 보증은 중기부가 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마치 제삼자처럼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긴급 비상대책을 만드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느 범위로 질 건지 그것 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중기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언주 위원 아니, 어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언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법적 책임이 인정되실 거예요. 장관님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중기부가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책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오시면 큰일 나요, 소비자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그 상황들을 체크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니까 대책을, 정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우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냥 면피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 어차피 인정되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이 인정이 되니까 책임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져야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상황을 중기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중기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중기부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빨리 보호를 할지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지금 용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이언주 위원님 기차 시간도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입니다.

장관님, 아까 부채가 심각하다고 많이 했어요. 차관님이 아시면 차관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영업자 312만인데 약 1055조 대출이 있고 그중에 코로나19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가 28만 6000명, 대출 잔액이 57조 9200억, 코로나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 후유증을 깊게 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고물가, 고금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20% 정도 코로나 이전에 받았다면 코로나 때 4배 정도 받고 이후에 2.5배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주로 국가가 재정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정부 대신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대출을 해서 위기 극복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듯이 미국은 21.4, 일본은 18.7, 우리는 6.7이란 말이지요, 정부 부채가. 개인이 안았다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또 이런 종합대책으로 금융위에 새출발기금을 해서 10조를 올렸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조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지금 새출발기금이 3조, 1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왜 그러면 새출발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나? 가장 큰 게 낙인효과인데 공공

시스템에 1년, 그렇지요?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록이 7년간 남기 때문에 이걸 씬으로써 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 거라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저희 대책에서도 이번에 새출발기금에서 가시고 나서 바로 재창업을, 재취업을 하시면 1년 내에 저희가 그 기록을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 됐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오세희 위원 제가 또 중소벤처부를 보니까 부처별로 금융정책이 다 흩어져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위변제해 주고 금융위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 금융정책이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 기관을 산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기부 산하기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새출발기금은 금융위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금융위하고 중기부 사이에 정책 협의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메커니즘 속에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먼저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님, 아까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 지원금 또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언론들의 질타가 아주 매섭습니다. 언론들 제목만 보더라도 보이콧 조직도 받았다, 피해 없어도 돈 받았다, 줄줄 섰다, 국민 세금 3조 원 눈먼 돈이다, 이 눈먼 돈 대잔치를 벌인 문 정부 등등 지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20년 4월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에 현금 살포하는 행위는,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명백한 매표 행위다 그렇게 수없이 주장을 했음에도 급하게 지원금을 살포하는 바람에 제대로 정책도 꼼꼼하게 세우지도 못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 그 지급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들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담당 직원이 1명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한 차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의 초점을 재발 방지랄지 이런 데 맞추었지 징계나 수사 의뢰 쪽으로 맞추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환수하고

어떤 부분을 환수하지 않을 것인지는 중기부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데에 지급한 것, 피해규모 이상으로 지급한 데, 이런 데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충분히 듣고 거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환수해야 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환수해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줬다가 뺏는 식이 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환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자한테 지급한 것 그다음에 면허 양도 등으로 아예 영업이 불가능한데 또는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지급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자 실수로 지급한 것, 아까 얘기한 보이스포싱에 지급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중기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부분은 환수하고 어떤 부분은 환수하지 않을 건지 계획을 세워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만기연장 지원에서 기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에서 2020년 3월부터 22년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데에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바람에, 실제 대출은 그 후에 다 있었던 말이에요. 대부분이 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만기연장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다시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살펴서 제가 별도로 의원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져도 계속 질의를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이번에는 장관님 한 텀 쉬시지요. 특허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1인당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미국과 비교해도 한 3배 된다고 하고 그리고 투입 시간은 오히려 상당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특허분쟁과 관련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내외나 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한 15% 내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특허청장 김완기 저희가 심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 인력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 규모상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현재 2만 건 정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전쟁 시대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성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허청장 김완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사관을, 심판 전 단계에서의 심사도 퀄리티가 제고돼야 되기 때문에 심사관 인원 증원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실제로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한 100명 가까이 심사관을 증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재관 위원 심사관 문제도 있지만 전에 보니까, 지난번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임기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빨리 추진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수많은 특허권이 현재 있는데 사장되고 있는 특허 또한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허청장 김완기 지식재산권 하나 자체가 확보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확보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관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업부와 중기부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스타트업 타운 조성해서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허청의 특허 문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부처 간에 지금 현재 어떤 칸막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협업해야 될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기부장관님께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보다 실효성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R&D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특허와 관련된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기반 R&D 분석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중기부를 포함해서 산업부 그리고 과기부 그리고 다른 R&D를 수행하는 부처들하고도 계속 협업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특허 데이터의 활용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민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R&D 예산이 일률적으로 대폭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실 중기부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R&D답지 않은 예산들이 좀 있어서 구조조정은 좀 필요하다는 게 수년간 있었었습니다.

○송재봉 위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게 확일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틱스 기업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림을 보시면 1월에 ‘예산 조정에 따라서 20% 감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산서에 있던 내용들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월 말에 ‘올해 예산을 감액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다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었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틱스는 R&D다운 R&D라서……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월 말에는 ‘예산을 감액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 보도가 거짓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올해 예산이라는 말은……

○송재봉 위원 그랬는데 6월 달에 운영사 대표들 모아 놓고 지급 지연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라 운영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 감액된 업체수가 599개인가요? 여기는 현재 상당히 혼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월 달인가요? 공문을 보낸 게 있지요. 공문 발표한 것 그거 한번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것은 보도설명 자료인데……

○송재봉 위원 보도설명 자료, 여기도 보면 ‘25년 종료 과제도 정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상 지급하는 것 맞나요?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게 이제 100%, 지금 정상 지급은 80%……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감액하면서 80%, 50%가 있어서 100%한다는 소리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정상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기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혼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보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운영사 통해서 대상 기업들과 제대로 소통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의 혼란이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 지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채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장관님 보시면 우문현답이라고 하셔서 현장 소통 행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굉장히 중요한 R&D 사업을 하고 있는 틱스 대상 기업들하고는 현장 소통을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자주 만났습시다만 이 문제가……

○송재봉 위원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셔서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고 설명하고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대로 한번 더 만나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서 제가 충분히 주고받는 대화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의식만 제가 드리면 한번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 나중에 따로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아까 오전에 드렸던 말씀 끊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투자 관련해서 정책금융에 대한 관점, 정책금융의 지위·역할 이게 근본적으로 조정될 시기가 됐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몸은 잘 안 따라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핵심은 모태펀드는 민간으로 빨리 바뀌야 된다.

물론 정책금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시드 투자, 아이디어 투자 이것을 전담하는 정책금융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성장금융이나 아니면 시리즈A, 시리즈B 같은 본격적인 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글로벌로 가야 된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비전을 안 갖고 스타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인데요. IPO 중심의 보상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IPO는 자본시장이잖아요.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의 유통, 순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아닌 거래시장이나 거래관계가 꼭 필요한데 세컨더리 펀드나 아니면 구주 거래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슬로건은 있는데 내용이 별로, 시장이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오는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제가…… 에콜42라고 혹시 아십니까? Ecole42, 프랑스에 스테이션F말고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선생도 없고 학비도 없고 강의도 없는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거든요. 이게 그냥 의대 다니다가도 와요, 여기를. 하버드 다니다가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이라는 게 지금처럼 대학교육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산자부나 과기부는 기업하고 별로 친하지를 않습니다. 중기부가 제일 기업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중기부가 현장의 기업이 필요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세계적인 트렌드를 분석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업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만들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계속 전국적으로 자꾸 만들면 안 되고요 특성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워싱턴DC가 스타트업 도시라는 것 혹시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 세계적인 스타트업 도시입니다. 워싱턴 DC 가 보면 기업이라는 게 정부하고 인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규제과학. 그래서 거브테크(GovTech)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네들은.

그러니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이런 관점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지금 너무 비슷한 것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스타트업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저랑 한번 대화를 나누고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중기부의 정책 전환을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과 우리 펀드 자체의 글로벌화는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조금 특색 있게 조정해야 될 부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글로벌화 대책, 중소·벤처 글로벌화 대책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3분도 너무 길다, 3분 안에 질문 3개 소화해 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정진욱 위원 이 회사를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4조 75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가 지금 먹튀의 징후가 있다. 아까 장관님께서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 적자를 많이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자를 넘어서서 지금 대규모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0일에 배달 중개수수료를 8월 9일부터 6.8%에서 9.8%로 3%p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들, 프랜차이즈 기업들 반대했겠지요.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여 주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배달의민족이 한국에서 번 돈의 60%, 최근에 영업이익이 6998억 원 지난해에 났는데요 60%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했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독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떤 평판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판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저는 그게 먹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수수료율도 굉장히 순식간에 높아졌는데 그 먹튀의 징후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수수료 높이지 않게 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개업보다 폐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 400만 원으로 높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서는 835만 원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재정의 여러 가지……

○정진욱 위원 1년 동안 폐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현실화시켜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너무 부실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항상 듣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홈쇼핑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에서 특정 협력사의 방송 편성 비율을 연간 최대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주)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예.

○정진욱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업종별 특색에 맞게 구분해서 편성 비율을 맞추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티메프 피해 판매사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2000억 자금을 제공하신다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긴급경영자금 하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중진공하고 소진공 가지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그쪽으로 피해자에게 집중해서 해야겠다 이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피해,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인해서 피해가 10% 이상 났을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산을 지금 못 받아 가지고, 한정적으로 정산을 못 받아 가지고 지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건데 조건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어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10% 감소한 기업은 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특히 소진공은 7000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써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체 피해만 확인되면, 정산이 안 된 것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업체한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피해가 확인되는……

○이종배 위원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다 줄지 저희가 예산이 그게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 5000억짜리 있지요. 지난해 연말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저리 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 것이 이 사업인데요, 5000억짜리.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상반기 중에, 2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한 1000억……

○이종배 위원 5000억 중에서 1000억이 안 돼 900억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905억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저 신용자 중에서 굉장히 저신용자 쪽에 더욱더 포커스를 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책에서 이것을 대상을 아주 확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제 8월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확대해서 신용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가게대출 하신 것……

○이종배 위원 그리고 가게대출도 100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그리고 8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게 아니라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7월 3일까지.

○이종배 위원 그렇게 좀 확대하는 거지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확대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잘 설계가 돼야지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바꾸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특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리 금융입니까, 이게? 7%짜리를 4.5%로 하는 것이 특단의 저리 금융이냐? 더 저리로 해야만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5000만 원이잖아요, 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한도 5000만 원입니다.

○이종배 위원 사업은 5000만 원, 가계대출은 1000만 원. 이것도 좀 낮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당초에 설계할 때 왜 이 5000억이 필요한지 이런 걸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해 보다가 집행이 덜되면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런 게 많아요, 중기부에. 당초 예산 수립할 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교하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좀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통계의 문제가 소상공인 문제는 항상 조금, 대개 2년 전 통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구상하고 이런 조정이 없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1분만, 자료 제출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박성민 자료 제출요? 위원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하지지요.

○김종민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요. 자료 제출 하나만 해 주시는데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이번에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법인이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창투, 창업투자와 관련된 법에 보면 이것하고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투자는 이런 기업을 외국 법인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60 대 40 그 허들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정, 이게 시행 과정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으

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투자 법에도 창업기업이 플립이라고 하는, 밖에서 할 경우에도 일정 그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창업투자 관련된 법률 조항의 개정 계획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장관님,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그중에 엔젤투자협회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해서 공공성 확보 및 운영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유관단체 지정 검토 등을 통한 기관 감사 실시 등 공공성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사실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올해 안에는 하셔야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티몬과 위메프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판매자, 셀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것 지금 금감원에서 사실 저희 쪽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간사, 김원이 간사와 사회교대)

○허성무 위원 그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금 방금 저희가 받았는데요. 한 2740개……

○허성무 위원 2740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아니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5만 개 지적하신 분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만 개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지금 확인된 2134억 원……

○허성무 위원 피해를 본 거고, 피해 신고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2134억에 대해서는 2740개 기업이고요, 앞에 추가적으로 육칠 월에 나올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것은 지금 피해 신고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거기에 등록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6만 개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활동하는 기업들.

○허성무 위원 그중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렇게 입점하도록 지원해서 들어간 게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액수로는 40억 정도고요 개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허성무 위원 기업 개수.

차관님, 몇 개예요? 담당 실장님, 몇 개입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잖아. 몇 개입니까?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2400개 정도 됩니다.

○허성무 위원 2400개요? 정확합니까? 지금 추정이 5000개 정도까지, 6000개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2400개가 지원해서 들어갔단 말이지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맞습니다. 중복을 다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중복을 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40억 규모고 2400개.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신고받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중기부는 지원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통정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금감원에서 일단 맡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래도 적어도 안내하고 지원해서 간 이 셀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신고도 받고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도 아까 계속 그 지적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를 열었고요 바로 저희가 했습니다, 유통센터에.

○허성무 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그분들을 직접 장관님이 만난 적도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은 만난 적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같이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중기부가 지원하는 이 2400개, 유통공사를 통한, 미정산 금액 4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서 헬프 데스크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따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지금 여야를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중기부가 제삼자적 입장 또는 촛촛한 입장 이런, 촛촛한 게 없다 제삼자적 입장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사실 남의 일 하듯이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 일이다 그래서 금감원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서에 다 맡겨 놓고 우리는 삼자적 관점에서 뒤치다꺼리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을 여야를 떠나서 모든 위원님한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질타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이 허성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장관님의 대표 브랜드가 우문현답 아닙니까? 우문현답 일곱 차례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안 만나셨지요. 아까 이야기한 팁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팁스는 만났습니다.

○허성무 위원 창업 기업자들도 안 만나셨지요. 그러니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데는 실제로 안 만나신 것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1분만 말씀……

○위원장대리 김원이 예, 장관님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가 중기부에 입점한 기업들, 중기부의 지원만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드리거나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비쳐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기부 지원과 관계없이 중소·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먼저 정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효율성을 가져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1분만 쓸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원이 다음번에 질의해 주시고요.

장관님,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요청은 좀 싸워 달라는 겁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재부가 중소벤처부보다 센 거 잘 알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중소벤처부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싸워 줄 것으로 믿고 허종식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요새 시장이나 나가 보면 정말 폐업 많습니다. 문 닫는 곳도 많고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폐업 신고자 100만 명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종식 위원 반면에 창업도 115만 명입니다. 왜 이렇게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느냐. 먹고살기 힘들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폐업은 오래된 직종보다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식당, 치킨집, 부동산, 미용실, 눈에 늘 보이는 데에서

사라지고 또 바뀌고 사라지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창업들을 신중하게 하시라 이런 기사 자료 같은 것도 중기부에 서 만들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막무가내로 폐업하는 것도 좀 줄어 들고, 창업 이 줄어들면 폐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중기부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머리 좋으신 분 많잖 아요. 이것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종식 위원 다음.

어제 실제로, 식당입니다. 제 미추홀구에 있는 묵은지삼겹살이라는 식당인데 23년째 부 부가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이게. 식당인데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만 원을 2020년 4월에 받아서 내년 4월이면 이제 만기입니다. 갚아야 되고요. 500만 원은 코로나 때인 2022년 1 월에 받아서 이것도 27년 1월이면 갚아야 되고요. 안 돌아가니까 은행에서 융자 1000만 원을 받았습시다.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이게 한 70만 원 되니까 보증금 80만 원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하는 데,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아닌데.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여 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소비가 안 살아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것도 사실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온누리상품권도, 종이로 된 상품권은 어르신들이 쓰는데 이거는 할인율이 5%예요. 모바일이나 이쪽은 10%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안 써. 이거라도 쓰면 동네 식당은 좀 돌아가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도록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 종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대출도 좀 획기적으로 연장해 줄 거면 한 10년 연장해 주고 고 금리도 예를 들어서 7%면 한 3%로 떨어뜨려 주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셔야지 이거 지원 5000억 해 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획기적으로 안을 좀 마련해 달라. 다 죽어 가고 있잖아요. 살려 놓고 봐야지요.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 고 생각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종식 위원 물론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말 취약한 곳을 잘 찾아서 저희가 가능한 한 어려움들 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 드리면서 다시 정상적인 트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면밀히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내용에 저는 그렇게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보완해 보도록 하는데 저는 빠 른 이행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허종식 위원 빨리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7월 3일 날 발표한 정부 대책의 빠른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저희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하는 것이 앞으로 매출의 증진에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그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 뜻도 이해는 하는데 현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기부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몇 번 말씀하셔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이야기를 아까 조금 답변해 주셨는데 금감원이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기업과의 소통까지 다 담당을 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단 일차적인 소통까지 해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거는 시간상 안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빨리 국민들께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거는 정무위에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가요? 저희가 그냥 금감원 콜센터 번호 정도만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본질의에 좀 들어가서, 우리 중기부도 국가균형발전과 그리고 지역 내 균형발전에 그래도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부처일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전 특히 옆 지역인 중구가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전에서 또 이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중기부가 정말 중앙 부처로서 균형발전, 그게 전체 국토균형발전이든 도심 내 균형발전이든 이거 의지를 갖고 있긴 한 거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데 혹시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진공의 이전 문제는 소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근무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직원의 한 30%가 계속 젊은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저희 원도심 내에도 좋은 건물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100개 정도……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 그런데 100개 정도를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저희 동구에 새로 이전하는 기관이 여러 개고 우리 특허청 산하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장철민 위원** 저희 원도심 시민들이 더 큰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전의 문제와 관계없이 중기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 중에……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1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국감 때 따져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예요.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그렇고 중기부에서도 그렇고 청사 마련 같은 것들을 이제 계획들을 잡아서 다시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거기 원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 혹시 도심융합특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장철민 위원** 지금 여러 부처가 함께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해당 가까운 지역에도 존재하고 저희 동구에 대전 역세권 주변에도 존재하는데 그게 작년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이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 간 협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정말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대전 중구나 아니면 저희 동구나 이런 데에서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다라는 명확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보여 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큰 실망감,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중앙 부처가 우리를 그렇게 버릴 수도 있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전 속에서 좀 바뀌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역할을, 지금까지 상황들은 저희가 총선 과정도 있고 하면서 사실은 저도 제대로 모니터하거나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 소진공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국회도 힘을 모으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한 계획과 콘텐츠들을 가지고 꼭 밝혀 주십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대전시하고 중구하고 협의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심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저희 사업들도 많으니까 그 틀에서 같이 잘 협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다시 이전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유사한 환경이 있다고 또 제안된다면 검토하겠다는 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돼 있는 결정을 할 때……

○장철민 위원 이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니까 다시 하는 것도 직접 하셔야지요. 그거를 누가 갑자기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를 마련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중앙 부처 기관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무래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은 전체 730만 소상공인을 위하여서 일을 잘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 부분 탄탄하게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도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중구 또 대전시와 함께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또 의원님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전 이슈는 소진공 이사장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원이 위원장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이사장님, 한마디만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선이 됐다고 추가질의도 못 하게 하던데 이 정도는 조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호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호입니다.

장철민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고요.

일단 그쪽으로, 유성으로 이사 왔습니다. 대전 내에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서 왔는데 그걸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예산의 낭비로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가 좀 곤란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안착을 해서 업무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전시 전체나 또 다른 시와의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책 진흥을 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떠난 중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평시장과 문창시장에는 문광형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겠네요. 이따 추가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원이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후입니까? 모르겠다. 박성민 위원께서 돼지국밥 좋아하시나 여쭙보신 것 같은데 좋아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돼지국밥보다는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서일준 위원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어저께 우리 여야 위원 몇 분이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요, 설렁탕 드시면서 많은 공감을 가진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장관님, 우리 여야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추어탕 먹으러 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좋습니다.

○서일준 위원 좋습니다. 날짜 맞춰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런 게 전부 정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요.

장관님, 노란우산공제 사업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작년 지난 4월 기준 가입자가 한 173만 명 정도 되고 이 숫자는 소상공인 4명 중에 1명꼴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공제부금 규모도 한 26조 원 이렇게 되고 사실상 소상공인들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이 제도가 사실상 의사나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가입 건수의 한 5.2%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문직 중에서 의사가 5만 542명, 약사가 1만 9000명, 건축사가 9600명, 세무사가 4600명, 수의사,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 이 고소득 전문직 이분들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워낙 처음에 노란우산공제를 설계할 때 소기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산이 돼 있어서, 원래 공제기금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의 설계도 지금은 고소득자보다는 4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범위가 훨씬 더 많이 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져가는 공제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일준 위원 지금 소득공제도 받고 있고, 폐업하면 또 다시 받고 다시 개업도 가능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4000만 원, 월소득 4000만 원 이하가 되시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소득공제 폭이 넓도록 그게 단계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물론 가입을 하셔서 공제를 받아 가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 안에서 소상공인들, 영세 소상공인을 더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영업자 전문직의 가입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일준 위원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내용을 챙겨 보면서 꼭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향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정부위에서도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있는 큐텐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전히 ‘GREAT K-WORLD SUPER SALE’하고 ‘K-TOWN’ 등 한국 제품과 관련한 판촉 기획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거는 29일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권향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중기부 산하기관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큐텐SG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사이고 지금까지 미정산과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7월 23일 시작해서 29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앞으로, 당장은 지금 한국에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은 종료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국내 상황이 해외로까지 이렇게 펼쳐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기부 7월 15일 자 동정자료에 보니까 중기부가 6월부터 7월까지 저지대·하천변 등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 최근 3년간 침수피해 시장 등 382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 상태를 점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또 보니까 장관님께서, 7월 15일인가요, 문창시장에 가서 철저하게 수해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3일 뒤에 문창시장이 굉장히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원인까지는 파악을……

○권향엽 위원 그곳은 7월 5일 날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가서, 사실 그게 배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어서 배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 소상공인진흥원…… 이걸 당진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향엽 위원 아, 당진시장이요, 당진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간 건 문창시장이었고요, 이거는 당진전통시장이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이 당진전통시장도 아무런 문제와 특이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2곳의 이 시장 점점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지방의 13개 지방청과 소진공 그리고 또 전통시장과 함께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당진시장은 저도 갔었습니다. 이후에, 피해가 나고 일요일 날 바로 가 봤었는데요. 아마 너무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장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향엽 위원 단순히 폭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 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었던 곳 중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던 11곳 중에 12곳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권향엽 위원님 시간 맞춰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님,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김원이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소진공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전하는 데.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실 때 들었던 비용, 제 생각에는 10원 한 장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전 비용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 하신 것 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전 결정에 대해서 사실 장관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전 과정에서 아마 회의록도 있으실 거고 왔다 갔다 한 공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계약하면서의 입찰 서류들, 굉장히 다양한 이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왜 이전을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도 누락 없이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는 별 오만 소문이 다 있거든요. 이게 유성구에서 정치를 계속하시고 싶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등 무슨 KB와 관계가 있다는 등 제가 온갖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 싶었는데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정



말로 조금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 볼 테니까 관련 자료 더 제출 요구를 할 거거든요. 좀 누락 없이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관련된 자료들은 잘 챙겨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방금 우리 장철민 위원님 자료 요청 잘 챙기셨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호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기재부와 부처 간 협의를 했다고 그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협의하고 예산을 협의했을 텐데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 방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없어요. 없대. 기재부 당국과 협의 중이래, 현재까지도.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좀 줬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가 계속 TF를 했으니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배달비를 지원하잖아요, 50%. 그것 지원 대책에 나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배달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부분까지 할지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배달비 50%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배달료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교홍 위원 50%라는 얘기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50%라고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렇게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배달료 등……

○김교홍 위원 최대 2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가량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대책의 내용에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김교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소상공인 지원 대책 터트려 놓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책이나 예산을,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뒤에 14조, 뒤에 11조 이렇게 해서 터트려 놓고 뒤에 정책과 예산을 갖다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김교흥 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배달이 한식음식점과 제과점 이런 데는 이용률이 낮아요. 그리고 유사 음식점, 피자나 뭐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건 배달률이 높아요. 나는 배달비를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음식점, 외식업의 약 30% 정도만 배달앱을 이용하고 70%는 배달업이 없어요. 그러면 지원할 때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러지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리고 뒤에 답변을 하세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적인 미봉책에 끝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금리를 지원하건 세제를 지원하건 뭘 지원하건 뒤로 연장을 몇 년 연장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가 진작돼서 매출이 증대가 안 되면 이걸 연장해야 그때뿐이에요. 미봉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걸 중소기업부에서 찾아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부가 7월 3일 날 낸 대책이 미봉책이라 생각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달료와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교흥 위원** 장관님, 내가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미봉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부 지원책은 대개가 세제 지원이나 뭐지 매출 증대나 소비 진작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매출 증대 사업도, 그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왜 위원의 말에 꼬투리를 잡느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얘기를 듣고 하세요.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마시고 제 얘기는 매출 증대, 소비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중기부에서 내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라 이런 뜻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 중에 매출 증대와 관련된 대책을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 대책 내용에 50만 원 이런 대책이 있지 않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외식업 등 배달료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재정 당국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진전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이** 김교흥 위원님 말씀하신 궁금해하신 사항들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본 위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의 글로벌 경쟁력 관련된 질의를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류 영향으로 K-푸드, K-화장품 등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 2022년 말 기준 해 가지고 중소·소상공인 수출액 규모가 1133억 달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중소기업 포함해서.

○고동진 위원 전체 수출액의 16.6%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어떤 공직자분들도 많이 수고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년 전인 2017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매년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중소·소상공인 기업의 수출 기업 수하고 수출액 성장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이고 수출 참여율도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상당히 많은 중소·소상공인이 수출 전선에 뛰어들고는 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5월 달에 글로벌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원인을 설명했었는데요.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수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수출, 바이어를 찾지 못하는.

○고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서비스가 있으면 중소·소상공인이 내수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수출 기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PPT 자료를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이게 다 중기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 다 수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유통센터는, 업무 분장이 현재 저렇게 돼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미리 좀 제가 읽어 보고서 느낀 게 이렇게 분산돼서 있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기부하고 그 산하기관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소·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정책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월 달이 휴가 기간이니까 제가 한 4주를 드릴 테니까 대책을 마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실무협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져와 주시고, 이것은 제가 자료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인력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일부 대책은 있었는데 포함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동진 위원 어! 바뀌셨어요?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시절 끝나셨습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장관님도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제도나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은 좋지만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가 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제도 설계 시 매출액 감소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중기부 입장이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도 이게 객관적으로 과다, 과소 또는 오지급이 사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면 선제적 지원은 절대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제적 지원을 하고 말고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상황이냐에 따라서.....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밝힌 것은 피해가 발생해야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맞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김동아 위원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수한 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당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물으셨는데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59조 원이나 되는 코로나 지원 추경을 하신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급된 감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면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의 결과는 지급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 오지급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감사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 오지급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해서 이것 면제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김동아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 한 8000억 환수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환수를 면제해 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시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률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법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8000억 면제해 준다고 지금 발표한 것 모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 지원금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상공인들께서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감면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실정이 아니라 환수금 전액 면제할 거다,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하여튼 법률로 결정이 된 것, 법이 발의되고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생색낸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8000억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아 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중기부 역시 그런 입장으로 향후에도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상공인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면제했다는 말씀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과다 지급에 대해서 환수 유예·면제 결정을 국회가 21대 때 의결해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당시 당정 협의를 거치고 또 야당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법률안이 통과됐고 거기는 소위 말하면 악의적이고 기만에 의한 청구가 아니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과다 지급된, 과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유예하거나 또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지요.

○**김성환 위원** 장관님, 직접생산 확인제도라고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법률 9조의 공공기관장이 제품조달계약을 할 때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기부장관이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성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태양광 모듈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까지를 다 직접생산하지 않으면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업체들을 조달계약에서 취소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중소기업유통센터장님 나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세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저게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고요……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예.

○**김성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좀 봐 보세요.

PT 자료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의 정의 한번 읽어 봐 보십시오. ‘발전기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 보세요.

그러니까 저 그림의 오른쪽 끝에 있는 태양광 모듈, 그 밑의 전환장치 이런 것을 직접생산하느냐, 안 하느냐를 직접생산의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옆에 지지대들 있지요, 태양광 올려 놓는? 이것까지를 다 직접생산을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겠습니까? 그것은 철강공장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지금 이 그림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조달청에서의 결정의 내용의 원인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조물에 대한 해석은 직접생산의 정의에 관련된 그러니까 모듈이나 태양전지나 변환장치 등을 직접생산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태양광을 받치는 그 밑의 구조물은 굉장히 대형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까지를 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라고 하면 그러면 철강공장을 하나 더 차려야지요. 이것은 과잉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 해석을 조달청이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중기부가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심하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태양광 업체를 굉장히 많이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태양광이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고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용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중기부가 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따른 태양광발전장치의 정의와 해석에 있어서 소위 태양광 지지대, 지지대를 직접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과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책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태양광발전장치를 만드는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좀 답변 주시고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조달청이 구조물에 대해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의원실에 다시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관행대로 해 온 건지를 명확히 해 가지고 꼭 보고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조금 연결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원래 같은 감사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게 또 국회의 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 좀요, 2023년도 하반기 감사원 감사 결과 착오·부정수급 금액이 총 3조 2323억 원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착오 및 부정수급 금액이 3조 232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조……

○김성원 위원 예, 3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사업자 지원 확인한 것이 1만 5574개, 1205억 이것 숫자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아까 박형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들었던 ‘담당 직원이 1명이었다’, 맞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 지원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전 기간을 봤을 때 재난지원금 다 합쳐 62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62조를 직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현금 지원은 60여 조……

○김성원 위원 현금성 지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1명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영수증 같은 것 보던 것을 1명이 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62조를 1명이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전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러니까 한 과가, 회복지원단이라는 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그 과에서 1명이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체 과, 회복지원단 전체였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아까 박형수 위원님 답변에 1명이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원단 전체에서 한 것……

○김성원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명은 아니고요.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언론에서 봤



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회복지원단이라는 국을……

○김성원 위원 그 회복지원단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뒤의 차관 답변하셔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회복지원단장,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아니, 차관 답변하셔도 돼요.

그 지원단 몇 명이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0명 인원입니다.

○김성원 위원 3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책임 소재 가리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봐 봐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착오·부정수급 금액이 3조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중기부는 책임 안 지겠다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중기부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가 여러……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3조 2320억 원이 착오·부정수급이 됐는데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3조……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 감사원 말고. 감사원은 그 제도와 향후 재발 방지 이런 측면에 범위를 그렇게 잡은 거고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착오·부정수급 금액이 3조 2323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기부가 착오·부정수급 금액이 3조가 넘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조 2000억 중에 감사원의 결과 3조 1000억은 제도 설계의 문제, 미비였고 잘못 오지급된 부정수급은 2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후 관리가 잘못돼서 했던 1000억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하라고 감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급한 시기, 급하게 이게 지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기부가 전체 조직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기부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 감사원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한테 지적을 했고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처 자체가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업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 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장관의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지금 답변 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감사원에서는……

○김성원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렇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시작을 하실 때 이견……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 지금 답변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셔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 워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그것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 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감사원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장관님 견해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 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것 확인해서 추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추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사실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한 산업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허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출원 규모에 비해서 특허 보호 수준이 평가에 따라 다르겠습니까마는 세계 한 28위 정도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원인까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특허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제대로 쉽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측면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요. 특히 그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특허권자가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써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또 기술혁신 기업, 과학기술계 모두가 다 찬성을 했고요. 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특허청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청장님께서 몸담으신 곳이기는 합니까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대해서 이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제대로 혁신하려면 사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술 탈취를 아주 철저하게 막아 주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산자부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특허청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풀어 보실 그런 판단과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당연히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이 특허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와 관련해서 역대 청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침해와 관련된 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증거수집이 상당히, 증거수집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증거수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관계부처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업계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은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도 지속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특허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논의 경과 검토하셔서 현재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계획 이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유형 두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피해자 중에서 핫딜이나 공동구매, 최저가 구매 등을 위해서 검색 등을 통해 들어온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맘카페 주부들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용이, 신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 상당수 구매자들이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이라도 보상받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현장에서 저한테 소개를 해 왔습니다.

제삼자 상품·서비스 중개업자가 이번의 티몬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판매하는 프로그램 등을 한번 구상해서 카드사 등이 할인 제도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또 판매자들도 원가 판매로 해서 티몬 사태 보상판매 이런 것 등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피해 규모,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 유형은 이번 사태의 큰 주요 멤버 중의 하나가, 지난 정권에서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쿠폰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을 정도로 많다 이렇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많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시장에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또 진단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등이 이커머스 경제계나 또는 전체에 많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쿠폰 발행자나 전자상품권 이런 데들의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쇄도산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에서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이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동 부분은 TF에서 아마 소비자 부분과 같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서 같이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허청장님,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간 중소기업들의 특허기술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했더니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280명, 대기업 관련해서는 17명, 중소기업이 16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 근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책,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78.6%가 아예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김정호 위원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아까 서왕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특허청장 김완기 아무래도 피해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소송 이게 중소기업 패소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겨우 39% 이기는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금방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소송은 아니고 특허심판 관련입니다.

○**김정호 위원** 예, 심판이지요.

결국 이런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유인 거지요. 지금 제가 5년째,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여기에다 더해서 한 말씀 첨언을……

○**김정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럼 하시면 됩니다. 산자부 출신이니까 산자부 설득 하시고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변리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대리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변리사도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아직도 통과 못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 영역인 변리사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소·벤처기업들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의 참여가, 공동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각국마다 사실 특정 직역의 소송 참여 형태가 좀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은 관계……

○**김정호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들의 88%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특허분쟁 비용이 높아지고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소송에서 이미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민사소송도 변호사만 할 건 아니다. 이치에도 안 맞지요.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은 특별히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 공동대리가 필요하다.

청장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관련된 입법들의 협조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수집 제도 자체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다만 증거수집도 중요하지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려면 결국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청 차원에서 계속 제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침해소송에 특정 직역이 공동대리하는 부분은 사실 각국마다 범위도 좀 다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의 다 공동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그 범위가 사실 좀 많이 달라서……

○**김정호 위원**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특허청장님, 나중에 또 부족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좀 결을 달리한 다른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메프 사태나 또는 자영업자의 손실 부분이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당장의 제도적인 문제도 또 실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적 상황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에 태어난 분들이 약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태어난 분들이 지금 한 이십사오 세 되는데 주 소비층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27만 명입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소비 인력이 줄어들고, 지금 그때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해서 70년대생까지 거의 해마다 100만 명씩 태어난 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영업자로 다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주 소비층이 너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를 하려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30년이 지나면 소비환경이 거의 다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우리 농민들의 수는 10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이에요. 그런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200만이에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인구는 더 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산업환경도 바뀌고 인구구조도 달라지고 하는 이런 피치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00만 이상의 자영업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소비 인구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것의 불균형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이 손실 부분을 국가가 국고를 털어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 문제나 자영업자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운명을 쥐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산업환경,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당장 팔아 줄 사람은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만 넘치는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것을 지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세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그 도움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나 고용원 수의 증가나 이런 것에 표가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R&D를 각각 전부 다 자기 회사의 잉여 자금을 가지고 해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사 업종, 동종 업종끼리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든지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기반은 같이 공동으로 R&D를 진행한다면 정부가 얼마만큼 세제 혜택을 주고 그만큼 세금 면제를 해준다든가 추가 보조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각 기업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지금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물론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일부 소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연결을 해서 취업으로 가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부가 여러 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분야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동 R&D, 컨소시엄 R&D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발표한 새로운 R&D, 중소기업 R&D에 그 부분을 꼭지로 넣어 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진행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시절 끝났다고.

(웃음소리)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특허청장님,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니까 위조하거나 모방하는 상품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기업이 안 할 때 상표권으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특허청장님 취임할 때쯤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커피 브랜드인데요, 영국에서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여기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외여행 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김한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되게 어려워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나라마다 형사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상표권을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부정경쟁 방지로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특허청이 이런 업체들의 피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크게 사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해외에 지식재산센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형으로 개편을 해서 실제로 현지에서의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거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한규 위원 그리고 상의를 하면 소송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다 그냥 설명해 주신다 이런 건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게 전략 지원 요청이라고 보면 되나요?

○특허청장 김완기 컨설팅 지원이라고……

○김한규 위원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작년에 한 5000건 정도 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개별 기업이 특허청에 이렇게 전략 지원 요청한 것은 한 78건에 불과하더라고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컨설팅해 드린 건이……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 5000건은 실제 모방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특허청장 김완기 모방이 의심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해 드린 건이 매년 5000건 정도 됩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의심되는데, 5000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전략 지원 요청은 78건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홍보가 덜 됐나 싶고.

자료를 보니까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드셨거나 아니면 공동 대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연히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김한규 위원**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예, 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예.

○**김한규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특허청장 김완기** 한번 언제 의원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직 제작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쭙보는 건데요,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특허청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보호는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력의 기초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박상언 위원** 우리나라는 특허 특허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어떤 제품이 특허청의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그 제품이 잘 팔리고 특허를 안 받으면 잘 못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박상언 위원** 특허청이 특허심사를 제대로 하는지는 대한민국이 기술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사기를 방치하는 국가로 가느냐 그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특허청은 이를 잘 알고 심사하고 있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PPT 1페이지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AI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쓸데없는 것인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겠냐?’ 그랬더니 예측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챗GPT는 ‘도널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구글 제미나이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또 당첨번호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챗GPT는 ‘무작위 추첨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구글 제미니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주 내줬어요. 혹시 이것 특허청장 입장에서 맞는 답변 같은가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AI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답변의 신뢰성이 100%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특허청 사이트에서 제가 받은 건데 이것 특허 등록돼 있는 겁니다. 등록돼 있는 건데 제가 이것 한번 읽어 볼게요. 특허 등록된 이름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 방법 및 예측 시스템’ 이게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출원됐고 심사를 거쳐서 2021년 9월 23일에 등록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아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상언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챗GPT도 예측을 못 하는 건데,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특허청에 버젓이 등록돼 있습니다.

특허청 제대로 심사한 것 맞아요?

○**특허청장 김완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곽상언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특허청장 김완기** 비즈니스 모델 쪽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곽상언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이면 이렇게 로또번호를 예측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허청장 김완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앞으로 기술국가로 나갈 것인지 사기국가로 나갈 것인지 특허청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오늘 수차례 질의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너무 어렵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나 연체율,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한번 여쭙보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중기부의 부채 관련 지원 사업은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금이 1000조가 넘었는데 정책자금의 전체 규모는 1조 8162억 원에 불과해서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결국에는 빚내서 빚 갚아라, 대환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효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사업들을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가 나왔던 것이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2520억인데 장관님께서 아까 650억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원 기준을 변경한 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7월 19일에 확인한 건 771억 원이었구요. 그래도 30%밖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앞서서 김동아 위원님께서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이 선별 지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수혜 대상, 얼마나 지원을 할 건지—이건 지금 2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체계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진작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 전체 예산은 3조 7000억 예산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책자금과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 증진과 관련된 것들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매출과 관련돼 있는 보조금 사업들도 저희가 꽤 많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제 질의 시간이 거의 끝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여쭙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더 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여쭙보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소상공인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 사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예산을 빼서 소상공인 예산을 증액을 한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빼서 여기서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둘 다 어려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말 대변해 가지고 잘 살릴 만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증액을 지금 재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코로나 지원금 관련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약간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였지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21년 9월 당시 수도권에는 4단계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18시 이후에 2인까지 금지돼요.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3단계로 사적모임 4인까지 그리고 22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이 금지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장사를 아예 못 했지요. 이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PPT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지원금을 냈습니다. 미국은 약 2000만 원 정도를 1인당 지원을 했고요, 영국은 1140만 원 그리고 한국은 100만~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당시 코로나를 지원해서 버텨 낸 그런 것이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 그리고 태양광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자 등에게 지원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당시 이런 문제들을 여야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차 지원금은 과세정보 확인이 어려워서 사후 확인 조건부로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 신속 지원 위해서 선지급했고 여야 합의로 환수 면제, 법률 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매출 증가 과다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알바생이나 고용인력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장시간 노동에 온 가족들이 동원된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매출을 늘려 놓은 거지요.

그래서 과다한 매출 증가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코로나19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것이지요.

정리해 보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한 경험을 쌓으면서 진보의 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축적해 준 거라는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중기부가 좀 더 제도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잘못된 지급이 없게 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더 얘기하고 싶은데.

특허청장님 오셨으니까요,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금 국가안보, 경제안보에 직결되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특허청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미 올해 6월까지 5건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보면 43건이에요. 적지 않은 수의 핵심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사실 산업기술 유출은 내부고발자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열심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결국은 끝났어요. 22대 국회 때는 이게 입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 생각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특허청장 김완기**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다만 특허청만의 업무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범정부적으로 구성이 돼서 특허청도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저희 생각에도 나름대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입법 추진, 제도 개선을 담아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져 주시면 우리 국회에서도 협조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회생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있고 한 종류는 한계 소상공인이 있다. 결국은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차주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취약차주 숫자 비율도 가계 취약차주보다 한 2배 정도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연장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새출발기금, 금융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한 게 새출발조정기금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새출발기금.

○**나경원 위원**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해결을 못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금융위랑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제가 제안하는 이런 것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건지하고 다른 방법의 어떤 금융지원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소상공인과 또 한계 소상공인처럼 빨리 청산하시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으로 갈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나눠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범정부대책을 만들 때도 정부 내에 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한계 소상공인들에 있어서는 물론 폐업 지원과 희망리턴 패키지를 하지만 많은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분은 새출발기금을 금융위에서 하면서 이번에 10조를 더 기금을 늘리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한 같은 조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올해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한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새출발기금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요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새출발기금 신청조차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도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시간 다 안 채워서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오늘 종일 우리 위원회를 뜨겁게 했던 티몬 또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정산된 금액을 관리를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산해야 될 금액을.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아니, 티몬이 유동자산이 1300억이고 유동부채가 7100억이나 되는데 이런 재무구조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올해 4월에는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건 외감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밖에 나와 있던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이커머스 전자통신 판매가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한 40개 정도 되고요.

○박성민 위원 다른 플랫폼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상황에서는 확전될 가능성은 없지만 저희가 중기부 관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유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자금 돌려막기나 혹시 정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부 그렇게……

○박성민 위원 정산 방식이 결국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위수탁 40일,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돈을,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은 지금 경찰과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큐텐 구영배 대표가, 이분이 2019년도에 이미 자본잠식이 되고 문제가 감지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까 설명을……

○박성민 위원 혹시 특혜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커머스 사업 자체……

○박성민 위원 장관님이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커머스 사업 자체…… 저희 사업에 있어서의 특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선정위원회 자체를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행사를 선정하는 구조를 유통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2019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특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신 말씀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선정과 관련돼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이게 파장이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긴급경영안정자금 준비부터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같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일어나기 전에 또 유통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부터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원래는 여야 간사 간에 보충질의까지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만 좀 더 꼭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최소화해서 추가질의를 받기로 합의가 됐기에 몇 분만 더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분은 양당 간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오세희 위원님과 이재관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 다음, 고동진 위원님, 김성원·강승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두 분은 양해를 받아서 질의를 안 하시기로 했고.

서왕진 위원님 추가질의 기회를……

○서왕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양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분씩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 중에 보니까 교육사업이 764억입니다. 맞지요? 상세히

내용을 보니까 중복 교육도 많고 너무 산발적이고 4회, 6회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희망리턴패키지가 폐업을 해서 재기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인턴십도 하고 멘토링도 해야 되는데 취업 연계까지가 불가능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PPT를 올려 봤는데, 3136명이 했는데 10% 315명만 창업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소진공이 과연 아카데미인가. 또 문제는 소상공인시장공단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진공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만 너무 교육사업이 많다. 집행하기는 쉬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소상공·자영업은. 그래서 이 부분의 정리가 좀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호**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저희가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 일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영할 수 있는지,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코로나19에 30명 이랬다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7억 정도의 수당을 아직도 못 주고 있다고 하네요, 직원들요. 그러니까 밤새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7억 정도의 수당을 못 받았다는데, 코로나에 밤새워서 지급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정부가 해결해서 정당한 금액은 줘야 될 것이고 지급을 해야 되고.

소진공에 지금 800명, 900명 근무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업무 질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빼고. 아카데미도 아닌데 교육사업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촘촘히 예산 집행을,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 예산을 너무 그렇게 해 왔던 거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관련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는 게,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은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졌어. 아까 28만 몇명 정도가 있지요, 채무 프로그램. 그런 분들은 연장해서도 안 되고 빨리 재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코로나 때는 어쨌든 정부의 방역에 문을 강제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줘서 이분들 정도는 탕감 정책도 장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저희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새출발기금에 90%까지 탕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하고 연결해서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금



관련된 부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재취업과 재창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실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아까 소진공의 직원들 급여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7억이라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진공의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낮아서 여러 가지로 당국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진공 직원들하고 미팅하다 보니까 7억의 수당을 못 받았대요.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오세희 위원 아니, 손실보상하느라 밤냈는데 그 돈을 여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수당을. 그건 줘야지요.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감사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에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뛰고 했는지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정서들이 고스란히 이 글을 읽어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께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님, 검찰 수사와 감사와의 차이가 크게 뭐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드리는 것일 거고 검찰 수사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검찰은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만 그 과정에서 비위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을 병행합니다. 다만 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도를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눈에 거슬리는 저기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정교한가 아닌가, 왜? 이게 모든 게 처음이거든요. 새로운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교하다라는 것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은 그 당시의 공직자들의 어떤 잘못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러한 사례들이 왔을 때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일본이라고 하는 건 벤치마킹의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이 먼저 판단하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히려 먼저 선도적으로 잘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게 밤새워 일했던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처벌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소명 의식을 불러오는 데는 오히려 상당한 장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혹시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물론 초유의 사태여서 제도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공직자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스스로 저희 부처에서는 생각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리나 비위에 의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비위나 비리가 없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기부 자체의 업무의 완속도가 좀 적어서 생겼던, 그렇지만 국고에 많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여러 가지 말씀 있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중기부는 올해, 2023년 3월부터 각종 점검회의 등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에 보면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의 핵심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올해 4월과 7월 두 회의체 구성원을 살펴보면 공익위원 추가 외에는 상생협의체도 구성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율규제 이행점검 결과가 수수료 인상으로 됐는데 상생협의체 결과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생협의체가 10월까지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제안될 텐데요. 배

달의민족은 8월 9일부터 수수료를 44%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누장 대응이라고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중기부의 대응이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상생협의체의 일원으로 중기부도 참석을 하고 있고  
 일단은 소상공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로사항들을 더 넓게 저희가 파악해서 상생협의  
 체 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자체는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기부가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  
 책에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배달료 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수료가 더 상승할 걸로 우려가  
 되어서 의견을 물었더니 중기부의 답변은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인 사안으로 자료 제  
 출을 못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  
 산의 규모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예산  
 사항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이  
 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법안으로써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당성과 적절성, 효과성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정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구속력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제인데 배달의민족이 8월 9일부터  
 중개수수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9.8%, 3%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현재 쿠팡이츠가 9.8%를 이미 받고 있고 요기요가 12.5%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민이라고 하는 데가 9.8% 올린 것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문제는

배민이 우리나라 배달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5조를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6조에 또 보면 하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7월 23일 날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우리 중기부에서 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정위에서 배달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상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물론 제가 배달의민족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자들의 특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영세 소상공인 들이지요. 9.8%면 거의 10%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발달로 어떤 플랫폼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 걸 로킹을 시키고 거기서 수수료를 배달료, 포장료 막 이렇게 갖다 얹는 그런 불법적인, 불법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기부가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저는 정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배달업체와 상생협의체를 만들 때 이미 정부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부터도 중기부하고 공정위는 계속해서 배달업체를 만나면서 상생의 의무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던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달 상생협의체가 10월까지 입장을 내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 부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금이, 태양광 업체의 지원이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특히나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호별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태양광 업체에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잘못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태양광 업체가 사실 고정가격제로 이미 코로나 전에 가격제를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FIT를 했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는 건 그런데 추가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대개 태양광 업체들은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한전과의 계약 관계에서 본 겁니다.

○**김동아 위원** 제 말씀은 추가적인 영업을 말씀드렸는데 기존, 그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오늘 계속 취약 소상공인 지원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의 주된 얘기는 이겁니다. 취약한, 다 망해 가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지원도 좋지요. 그런데 망해 가기 이전에, 취약해지기 전에 지원을 해 주셔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부에서 나온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다 망하고 망하기 직전에 거의 심폐소생술 수준으로 대출 연장해 주고 대환대출해 주고 이런 정책이 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망하기 전에 안 망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매출 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해 주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장관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취약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7월 3일 날 대책에 담겼다 말씀을 드리고요. 7월 3일 대책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매출 증진과 같은 대책도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장관님이 기재부장관님이시면 그런 답변은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기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합시다’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매출 증진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이미 KDI 분석 자료를 보면 매출 증대나 이런 게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있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압박을 해야만이 또 중소기업이나 정부 측에서도 다른 대안이나 매출 증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 할인 범위를 더 넓히든지 아니면 발행 금액을 넓히든지, 꼭 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단 저희 7월 3일 대책에도 매출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아 위원**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중기부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오 장관님,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국내에 있는 일차전지나 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때 발견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경기도. 그런데 중기부가 빠졌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소방청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건축면적이 3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차전지, 이차전지는 84%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안전기준에도 이렇게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안전 문제에 손을 뻗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법이 없답니다. 근거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희가 앞으로 2소위에서도 법안을 좀 더 다루게 될 텐데, 이 부분은 할 텐데 이제 장관님께서 하셔야지 될 것은 뭐냐?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다음에 인력하고 예산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기도 쉽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안전대책을 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법은 좀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부처 차원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 갖고 중소기업의 안전에도 신경 쓰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빨리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을 단축시켜 주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님, 노란우산 제도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노란우산공제 제도.

○강승규 위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사업을 위해서 퇴직금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주 목적이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 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가입한 부분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 9만 1942건 정도가 돼요, 집계를 보니까. 전체 재직 가입 건수의 한 5.2% 정도 수준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분들이 납부한 금액은 2조 5040억 정도 되고 이는 전체 부금액의 한 9.5%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는 5.2%이지만 납부금액분은 9.5%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받는 액수도 가입 수에 비해서는 규모는 더 커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도 다 개인사업자로서 이런 공제 제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노란우산 제도를 만든 것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데 실제 이런 혜택에 있어서는 전문직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폐업 사유 등으로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를 봤더니 11만 15건 정도 되는데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1조 2600억에 달하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900억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전문직 종사자들 등에 돌아가는 혜택들이 커져서 그럴 텐데 이게 제도 취지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 취지와 달리 이런 부분이, 트랙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최근에 고소득자들이 가입하는 퍼센티지는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의 한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4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때는 또 일정 정도 지원책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소기업에도 열고 공제부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잘 보면서 공제 제도가 특별하게 우리 소상공인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그 관련 사항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승규 위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도 큰 건데 실제 이런 영역마저도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 돌아갈 혜택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잘 유념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고소득자들이 들어와도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가는 공제액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란우산 소득공제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이고 우리나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녹색 특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기후테크다 뭐다 해 가지고 녹색기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만들면서 녹색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녹색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변경된 것 같아요. 특허 대상 기술을……

슬라이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특허청장이 정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허청장님이 정하시는 기술만 녹색기술 우선심사 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우선심사 제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요. 그런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로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왼쪽과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한 기술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고시 개정 전의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보면 오염토양 정화기술이라든지 매연의 생물학적 정화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기술이 우선심사 제도 혜택을 받았었고요. 저희 탄소중립기본법,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개정이 됐지요.

다음 슬라이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과 같이 여러 가지 기술을 포괄하는 정의가 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녹색기술이 최근에 얼마나 잘되고 있나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녹색인증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분류를 녹색기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이게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통계인데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술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기술들의 특허출원 현황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3개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색 특허, 재생에너지 연관 기술 이거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선심사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축소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녹색기술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제도의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허청장 김완기** 과거 제도에서 변경을 시킨 이유가 사실은, 나중에 데이터를 드릴 텐데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0건을 못 넘었습니다, 과거 제도상에서. 그런데 새로 제도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두 달 동안에 사실은 9건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올 연평균으로 한 50



건 정도 넘을 것으로 봐서 탄소 포집만 가지고 저희가 해 봤지만 앞으로 계속 좀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선심사를 너무 또 많이 늘리다 보면 일반 심사 처리기간이 너무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심사요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도 과거 통계를 봤는데 그것을 늘린다고 해서 사실 특허청 업무에 부담이 갈 수준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부처 관계자들에게 몇 마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티몬 또 위메프 등 사태와 관련된 많은 관심과 지적 또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식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조기에 빨리 정리하고 이 충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한 목적은 다 같을 것입니다. 주무부처이니 만큼 조속하고 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기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현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말씀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 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시기도 중요하지만 또 이후에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마련해 주신 재원이 불합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지만 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셨으니까 이 결과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오늘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이용수수료의 부담 문제는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에 도움도 되고 있지만 어느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 또 과점 체제를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셔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설적인 질의와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주 장관님과 특허청장님 또 그다음 부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승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홍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산자위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특허(13인)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박지혜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고동진 박형수 서일준 주호영	국민의힘(5)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13인)	곽상언 권향엽 김정호 김한규 송재봉 오세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7)
	김성원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이종배	국민의힘(5)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13인)	권향엽 김교홍	더불어민주당(7)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허성무	
	◎강승규 박상웅 박성민 박형수 서일준	국민의힘(5)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김동아 ◎이언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3)
	고동진 김성원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 ○출석 위원(30인)

강승규 고동진 박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원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주호영 허성무 허종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기획조정실장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이대희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정책기획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차장 김시형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  
산업재산정보국장 이인수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  
특허심판원  
원장 박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중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  
창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최열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이태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상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이동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직무대행 신상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박마루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조성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이재우  
한국발명진흥회

---

상근부회장직무대행 유태수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현성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김용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김명섭